

제 출 문

(재)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귀하

본 보고서를
실학박물관 지역 연계 협력 강화방안 연구 용역의
성과품으로 제출합니다.

2025년 03월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대표 전 철 원

목 차

I. 과업개요	1
1. 과업명	1
2. 과업목적	1
3. 과업배경	1
4. 과업범위	2
5. 과업 추진 방향	2
6. 과업 추진 경과	3
II. 기존 연구 및 사례 분석	7
1. 기존 연구자료 분석	7
2.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분석	10
3. 타지역 사례 분석	12
III. 사업 결과 분석	17
1. 인터뷰	17
2. 인터뷰 분석	19
3. 인터뷰 결과 요약	24
4. 네트워크 파티	25
5. 네트워크 파티 도출 의견	26
6. 네트워크 파티 종합 분석	27
7. 라운드테이블	29
8. 라운드테이블 도출 의견	30
9. 라운드테이블 종합의견	43
10. 시범사업	46
11. 시범사업 도출 의견	47
IV. 사업 제안	52
1. 과거 진행 사업 분석	52
2. 향후 사업 제안	56

I. 과업개요

1. 과업명 : 실학박물관 지역 연계 협력 강화 방안 연구

2. 과업목적

- 지역주민의 삶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해결 방안을 함께 고민하는 실천적, 참여적 박물관으로 변모하여 실학의 현대적 가치를 실현

3. 과업의 배경

■ 사전 사업을 통해 기구축된 인프라

- 2020년 <지역사회 공적 책임 확장을 위한 조사>를 진행, 조안면 주민을 인터뷰하고 지역 연계 방안에 대해 연구한 바 있으나, 이후 실학박물관 본 사업에 연계되지 않음. 연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으로 실학박물관이 지역과의 접점을 만들고 실제 사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고민이 필요함
- 2022년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재생사업>, 2023-24년 <경기에코뮤지엄(지붕 없는 박물관)>으로 조안면의 문화예술단체(거점) 2건이 선정되어 지역 문화 활동 주체를 발굴하고 주민 네트워크를 형성함. 그러나 <경기에코뮤지엄> 사업의 예산 축소, 연속 선정 여부가 불확실한 공모지원사업의 특성 등 예산의 안정성이 확보되지 않아 대안이 필요함

■ 중첩규제로 인한 지역 내 갈등

- 조안면은 1975년부터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음식점 운영 제한, 농약 사용 불가 등의 중첩규제로 주민들이 경제활동에 제한을 겪으며 불만이 누적되고 있음
- 무분별한 개발을 지양하는 합리적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지역 이기주의적 시위, 규탄 등 부정적 방식으로 공론화되어 피로도가 높음

■ 선주민·이주민의 차이와 갈등

- 조안면 인구 중 65세 이상 인구가 32%를 차지하며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음
- 주민센터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나 다수의 선주민은 농업에 종사하며 이에 관심이 부족하고 접근성이 낮음. 상대적으로 시간적·경제적 여유가 있는 이주민들이 주로 참여함

- 관내 초등학교 2곳이 모두 혁신학교로 지정되어 초등학생 자녀를 둔 청·장년층의 유입이 있으나 선주민과 교류하거나 지역에 정착하지 않고 자녀의 졸업과 동시에 지역을 떠나는 경우가 많음
- 양서면의 경우 생태·환경 운동을 위해 이주한 청년 활동가가 많으나 지역의 선주민과 교류가 많지 않고, 지역 정부의 기조에 따라 활동 규모가 크게 달라지는 경향을 보임

4. 과업 범위

■ **시간적 범위** : 2024.10.22. - 2025.03.31.

■ **공간적 범위**

- 위치 : 실학박물관 인근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일대

■ **내용적 범위**

- 지역자원 발굴 : 지역 활동가, 단체, 커뮤니티 공간 등 자원 현황 파악
- 지역자원 연결 : 지역 활동 주체 라운드테이블 진행으로 사업모델 발굴
- 시범사업 : 지역 주체와 함께 개발한 지역 연계 사업 시범 운영
- 연구보고서 : 지역자원 발굴, 연결, 시범사업 등의 성과를 정리

5. 과업의 추진 방향

■ **조사 대상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확대**

- 2020년 진행된 연구의 대상 지역은 조안면으로 한정하였으나 주민들의 생활권이 매우 인접하여 행정구역 단위로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조사·연구 대상 지역을 양평 양서면 등 인접 지역까지 확장

■ **스노우볼 방식의 FGI**

- 지역의 예술가, 활동가, 청년 등의 활동 주체를 발굴하여 개별 인터뷰 혹은 표적집단면접(FGI)을 시행
- 발굴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스노우볼 표집 방식으로 조사·연구 대상자를 우선 확보

I 조사 대상 지역을 생활권 단위로 확대

- 발굴한 지역의 활동 주체를 구분하고 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하여 라운드테이블을 진행
- 해당 주제와 관련한 지역의 이슈를 정해 지역주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발굴하고 구체적 사업 운영 방안을 모색

I 균형 있는 사업 운영

- 인터뷰 대상을 특정 단체나 정당 소속 인물에 한정, 섭외하지 않고 고르게 섭외·선정되도록 유의

I 지역 청년, 활동가의 연구 참여

- 지역의 다양한 청년 또는 활동가를 보조연구원으로 포함하여 연구 수행

6. 과업 추진 경과

I 연구원 섭외 및 기획 회의

- 연구원 섭외

연번	이름	이력	비고
1	강보영 (연두)	- 지역생태활동가 - 두물머리관광안내소 안내요원	양평군 거주
2	김채진 (이제)	- 문화예술기획자 - 전 실학박물관 뮤지엄 습 운영 인력	남양주 거주
3	신은경 (해빛)	- 예술가 (화가) - 용진정미소 프로젝트 참여자	남양주 거주

- 연구원 역할
 - 전체 진행과정 기획회의 10회
 - 인터뷰, 네트워크 파티, 라운드테이블, 시범사업 전 과정 참여

I 인터뷰 및 FGI

- 인터뷰 대상 : 지역주민, 농업종사자, 예술인, 자영업자, 기획자, 활동가 인터뷰 16회

	인터뷰 대상	일시	일시	진행
1	김혜리 (일러스트레이터)	24.12.02. 10:00	카페 아뜰리에	강보영
2	최은주 (모퉁이놀이터)	24.12.03. 15:00	모퉁이놀이터	신은경
3	전미경 (능내리 주민)	24.12.05. 10:30	삼봉리 자가 농막	김채진
4	최요왕 (양수리 농부)	24.12.05. 14:00	양수리 자가 농막	김채진
5	이연주, 최효정 (두머리부엌)	24.12.09. 15:00	두머리부엌	강보영
6	이석준 (릴리스)	24.12.11. 11:30	릴리스	김채진
7	홍세정, 정숙, 최고은, 이효정 (반디도서관)	24.12.12. 15:00	반디도서관	신은경
8	이양희 (팔당두레생협)	24.12.13. 14:00	팔당두레생협 진중점	강보영
9	박도희 (농부시장)	24.12.16. 16:00	농부시장 사무실	강보영
10	조혜원, 조호연 (다람쥐)	24.12.17. 11:00	다람쥐	신은경
11	김현숙, 박정국, 백정은 (가톨릭농민회)	24.12.18. 10:00	카페 아뜰리에	강보영
12	천은선 (양평청소년문화의집)	24.12.19. 16:30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신은경
13	이효주, 이효진 (인디밴드 삼치와 이기리)	24.12.23. 10:30	자택	김채진
14	바탕 (퍼머컬처활동가)	24.12.25. 11:00	카페 아뜰리에	강보영
15	김지윤, 김성은 (텔레떼)	24.12.26. 10:30	텔레떼	김채진
16	김봉자, 한호석 (용진정미소)	24.12.26. 09:00	송촌1리 마을회관	신은경

네트워크 파티

• 네트워크 파티 개요

- 추진대상 : 실학박물관 인근 지역(남양주시 조안면, 양평 양서면) 주민 및 활동가 50명
- 추진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14:00-17:30
- 추진장소 : 실학박물관 안 곳곳(열수홀, 로비, 상설전시실 등)
- 참여대상 : 지역주민, 활동가, 예술가, 농업종사자, 기획자,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50명

- 추진내용 : 사업 소개 및 참여자 소개(네트워킹), 후속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시간	일정	장소
13:30-14:00	접수 및 안내	로비
14:00-14:20	모임 열기, 여는 공연, 인사 말씀, 사업 소개	주차장, 열수홀
14:20-15:20	마음 열기, 얼굴 그려주기, 키워드 자기소개와 빙고	열수홀
15:20-16:30	실학박물관 둘러보기, 서로의 걸음 둘러보기	상설전시실, 열수홀
16:30-17:30	이어가기, 우리 동네 먹거리와 이야기 나누기	로비

라운드테이블

- 라운드테이블 개요
 - 3개 분야 라운드테이블 운영, 참여자 16인
-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 인터뷰, 네트워크 파티 진행 및 추천을 통해 각 주제별 참여자 구성

주제	일시, 장소	참여자	
교육	24.2.5. 14:00 실학박물관	김은아 (송촌초 교사)	정숙 (반디도서관)
		신미숙 (풀씨지역아동센터)	안창진 (진중교회)
		천은선 (와이플래닛)	
문화예술	24.2.10. 10:00 실학박물관	최은주 (모퉁이놀이터)	이효주 (삼치와 이기리)
		신은경 (예술가)	바탕 (퍼머컬처활동가, 도예가),
		김양현 (용진정미소)	
농사, 먹거리	24.2.14. 13:00 실학박물관	김지윤 (델레떼)	박도희 (두물물 농부시장)
		조호연 (다람쥐)	최요왕 (농부)
		이연주 (두머리부엌)	이양희 (팔당두레생협)

■ 시범사업 : 실·실·실 프로젝트 상상모임

- 시범사업 개요
 - 추진대상 : 실학박물관 인근 지역(남양주시 조안면, 양평 양서면) 주민 및 활동가 30명
 - 추진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14:00-16:30
 - 추진장소 : 양평청년공간 판판회관(양서면 두물머리길 20번길 8)
 - 참여대상 : 지역주민, 활동가, 예술가, 농업종사자, 기획자,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30명
 - 추진내용 : 2025년 운영 예정인 실·실·실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견 수렴 (설계 워크숍)

시간	일정
14:00-14:15	여는 말 : <실·실·실 프로젝트> 소개
14:15-15:30	실·실·실 상상하기 : 작은 실험 상상하며 대화 나누기
15:30-16:00	지원사업 상상하기 : 지원사업 운영 방식 상상해 보기
16:00-16:30	자유 모임 : 자유로운 교류와 대화

■ 전체 사업 진행 경과

- 사업 추진 경과
 - 회의 및 기획, 평가, 답사 11회

연번	일시	내용	비고
1	24.10.28. 18:00-20:00	연구원 미팅 (양수리 투썸플레이스) - 연구소개 및 진행계획 공유 - 역할 분담 및 인터뷰 대상 논의	회의
2	24.11.11. 13:00-15:00	연구원 미팅 (실학박물관) - 인터뷰 대상자 정리 - 인터뷰 진행 일정 정리	회의
3	24.11.20. 14:00-16:00	연구원 미팅 (송촌리 용진정미소) - 인터뷰 대상자 정보 취합 - 인터뷰 안내문 정리	회의
4	24.12.16. 12:00-14:00	연구원 미팅 (양수리 아뜰리에 카페) - 인터뷰 중간점검 - 네트워크 파티 기획 회의	회의
5	25.1.6. 13:00-15:00	연구원 미팅 (실학박물관) - 인터뷰 보고서 취합 및 정리 - 네트워크 파티 운영회의	회의

II. 기존 연구 및 사례 분석

연번	일시	내용	비고
6	25.1.18. 11:00-13:00	연구원 미팅 (줌온라인 회의) - 네트워크 파티 최종 점검	회의
7	25.1.24. 10:30-12:30	연구원 미팅 (줌온라인 회의) - 라운드테이블 기획회의	회의
8	25.2.18. 10:30-12:30	연구원 미팅 (양수리 카페가람) - 시범사업 기획회의	회의
9	25.2.24. 10:30-12:30	연구원 미팅 (양수리 카페가람) - 시범사업 기획회의	회의
10	25.3.6. 16:00-18:00	탄탄회관 사전 답사 - 홍보물 배포	답사
11	25.3.12. 18:00-19:00	연구원 미팅 (양수리 카페아뜰리에) - 사업 평가 회의	회의

II. 기존 연구 및 사례 분석

1. 기존 연구자료 분석

■ 기존 연구자료 : 지역사회 공적 책임 확장을 위한 조사보고서

- 연구자료 개요

<p>지역사회 공적 책임 확장을 위한 조사보고서</p> <p>“삶의 곁이 되어주는, 포용적 박물관으로서 실학박물관을 그려보다”</p> <p>2020. 8.</p> <p>주 관 : 커뮤니티 스튜디오104</p> <p>연구책임자 : 임재춘 커뮤니티 스튜디오104 대표</p> <p>공동연구원 : 이초영 (유)별일사무소 대표</p> <p>공동연구원 : 백소민 생활적정랩 빼꼼 연구원</p> <p>보조연구원 : 백소현 독일 Pädagogische Hochschule Ludwigsburg 교환학생</p>

▣ 세부 분석

• 연구개요

구분	내용
요약	<p>연구배경과 목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0년대 이후 박물관의 개념이 지식인 중심 이미지에서 지역문화공간으로 확대 - 1960년대 이후 에코뮤지엄의 개념이 확산, 박물관 운동의 한 방향으로 지역의 자연, 역사, 문화유산과 연계된 인간 관계성의 총체로 보는 시각 대두 - 1980년대 신 박물관 운동으로 박물관의 사회적 역할에 대한 논의가 확산 - 경기문화재단이 운영하는 실학박물관은 개관 이후 지역주민들과의 연대에 대한 다양한 시도 및 성과를 추적 <p>연구의 범위와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헌연구 : 시민의 참여적 권리에 관한 문화 담론으로서 문화권과 문화민주주의 - 사례연구 : 박물관의 역할을 확대한 국내외의 사례 - 인 터 뷰 : 조안면 주민 13명 면접 인터뷰
시사점	<p>박물관의 역할 확대에 대한 이론적 배경 및 실학박물관의 현황 조안면 주민 13인에 대한 인터뷰 진행을 통한 지역 밀착형 사례 연구</p>

• 포용적 박물관 사례

구분	내용
요약	<p>오늘날 박물관의 역할과 기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박물관협회(ICOM) 2007년 22회 총회 : '뮤지엄은 사회와 그 발전을 위해 대중에게 열려 있는 영구적인 비영리기관으로 인류의 유무형 문화를 수집, 보존, 연구, 소통, 전시하며, 교육, 연구, 향유를 위한 환경이다'라고 정의 - 박물관, 도서관, 기록관이 합쳐진 라키비움으로 박물관 개념이 확대, 해외에서는 새로운 사례가 확산 중 <p>국내외사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 지역주민의 삶의 형태를 다룬 전시, 지역의 이슈와 필요에 대응하는 박물관 사례 - 해외 : 주민들의 커뮤니티 지원, 지역의 역사·자연·환경과 관계 맺는 박물관, 시민·세대 간의 연결을 지원하는 박물관의 사례
시사점	<p>확대된 박물관의 개념에 부합하는 국내외 박물관의 사례를 정리</p>

II. 기존 연구 및 사례 분석

• 포스트 뮤지엄의 개념과 배경

구분	내용
요약	<p>시민 참여를 통한 사회 혁신의 흐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 전반적으로 민주주의 실현을 통한 '시민 참여'의 요구 대두 - 정보화시대에 들어 다양한 거버넌스에 대한 다양한 실험 및 성과 축적 중 <p>문화권과 문화민주주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의 개념이 장르적 문화예술의 향유를 넘어 삶의 영역으로 확대 - 문화 활동에 있어 시민의 '접근'과 '참여'의 중요성 부상 <p>예술의 사회적 가치 변화와 커뮤니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정책적 사업에서 커뮤니티 아트 중요성을 인지하며 다양한 실험이 진행 - 문화 활동이 여가를 넘어 시민 역량을 높이는 방식으로 확대 중 <p>박물관에 대한 새로운 정의의 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외로 커뮤니티박물관, 신박물관 등의 박물관의 역할에 대한 고찰이 진행 중 - 박물관이 사람, 공동체, 자연 생태로 주의를 돌리고 확장하는 사회적 역할에 대한 담론 대두 <p>포용적 박물관과 로컬리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람객을 넘어 시민, 주민과의 관계성 확대 - 박물관의 교육, 체험 프로그램에서 공동체와 상호작용 확대 필요
시사점	박물관의 역할 확대에 있어 대두된 담론 및 사상적 배경 정리

• 조안면과 실학박물관

구분	내용
요약	<p>조안면에서 만난 사람들의 목소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안면 내 조안리, 능내리, 진중리의 13인(50대-80대) 주민 인터뷰 - 동네 상권의 미형성, 개발제한구역으로 인한 규제지역, 대중교통의 발달 미비, 지역 인프라의 부족 - 노인회관, 마을회관, 주민자치 공간이 커뮤니티의 장이나 코로나로 인한 교류의 감소 - 교육공간으로써 학교는 폐교의 위협, 지역의 아동 청소년을 위한 SOC의 부족, 이를 극복하기 위한 주민들의 자체적인 노력 <p>박물관이 어색한 사람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물리적인 접근성의 문제로 선주민보다 이주민들의 이용이 주됨 - 실학이라는 개념의 문제, 박물관이라는 형태가 지역주민들에게 거리감을 줌 <p>익숙한 삶, 불편한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노인세대는 공통적으로 프로그램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이동 문제, 건강 문제 등으로 참여의 어려움을 토로 <p>바라는 삶</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들의 생활 및 농업에 있어서 다양한 삶의 지혜를 발굴할 수 있음 - 학습 및 다양한 활동에 대한 욕구는 있으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 - 지역의 아동, 청소년 돌봄, 교육에 대한 다양한 지역 네트워크와 확대 가능성 확인

시사점	지역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통해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접근 대상 지역 범위가 조안면으로 한정되어 노인 세대에 집중. 조사 확대 필요
-----	---

• 결론과 제언

구분	내용
요약	<p>‘유물’ 중심에서 ‘활동’ 중심으로의 전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물 보존의 공간에서 지역주민의 상호작용과 활동을 촉진하는 공간으로 확대 (사회적 플랫폼) <p>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커뮤니티의 결핍에 응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리적으로 분절된 조안면 내 각 마을을 모일 수 있도록 하는 사랑방 역할 - 이동권 제약, 코로나19로 인한 노인 여성의 우울감 등 지역 현안에 적극적 대응 - 지역주민을 대상화하는 것이 아닌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지역주민을 공동체 구성원으로 인정, 소속감과 연대감의 확대 <p>개인 삶의 서사와 가치 존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의 가치에 입각해서 지역주민들의 생활, 기술, 문화 등에 대한 서사와 가치를 발굴 <p>구성원 전체의 전환적 사고와 수용적 태도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사회에 대한 공적 책임의 확장을 위해서는 지역주민과의 소통에 기반한 실천이 중요
시사점	박물관의 역할 확장을 위해서는 실학의 가치에 입각하여 지역주민의 생활 영역에 대한 적극적인 발굴, 스토리텔링, 실천적 활동이 필요

2. 단행본 및 연구보고서 분석

■ 단행본 : 『참여적 박물관』 - 니나 사이먼, 연암서가, 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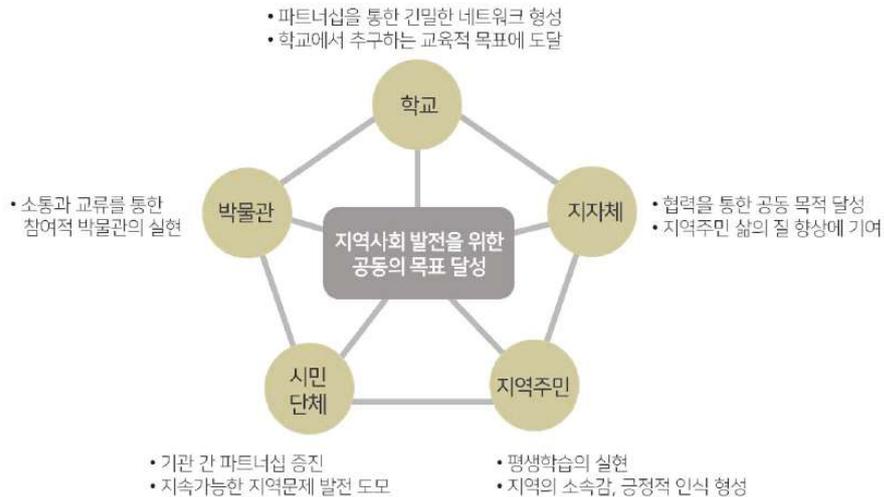
	<p style="text-align: right;">목차</p> <p>제1부 참여를 위한 설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1장 참여의 기본 원리 - 제 2장 참여는 나로부터 - 제 3장 나에서 우리로 - 제 4장 소셜 오브젝트 <p>제2부 참여를 위한 실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5장 기관에 맞춘 참여 방식의 정의 - 제 6장 기여자로서의 방문자 - 제 7장 방문자와 협력하기 - 제 8장 방문자와 함께하는 공동제작 - 제 9장 참여 프로그램의 호스팅 - 제10장 참여적 프로젝트의 평가 - 제11장 참여 프로젝트의 관리와 유지
---	---

II. 기존 연구 및 사례 분석

- 문화기관과 방문자 간의 거리가 확대되어 이용률 저하 및 필요성의 저평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참여 증진을 제안
- 문화기관이 참여적 배움과 엔터테인먼트적 경험을 제공하여 기존 방문자, 관객을 수동적인 수용자가 아니라 적극적 참여자-기여자로 유도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강조
- 방문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형성된 기여자 그룹은 ‘참석’을 넘어 더 많은 욕구를 갖게 되며 이는 더 많은 참여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됨
- 참여에 대한 설계의 기본원칙, 참여의 목표 및 평가방안을 제시
- 참여를 위한 기획, 프로그램의 운영, 공간의 설계, 장기적인 활동 등의 원칙 및 실무 지침, 사례를 제시
- 문화기관의 조직원이 변화해야 하는 방향 및 변화의 사례 등을 제시
- 다양한 사례 및 실무적인 지침을 다양하게 제시하는 실무자를 위한 지침서로 기능할 수 있는 단행본 자료

■ 연구보고서 : ‘지역 연계 참여적 박물관 프로그램’ 사례 연구

- 홍혜주, 강인에 / 『造形教育(조형교육)』 제78집, 2021.



〈그림 2〉 지역사회 기관 간 협력을 통한 거버넌스

- 궁극적으로 지역사회 참여 공동체의 협력은 학습자의 사회적 경험 확장은 물론, 주민과 지역 구성원들에게는 질적 성장을 비롯해 소통과 관계맺음으로 이어지는 지역 연계 참여적 박물관의 역할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 코로나19, 온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소통기술의 발달로 참여적 교육의 확대
- 학교 교육 외에 평생교육기관인 박물관의 운영 방식 및 협력 방식의 변화
- 종로구의 학교, 시민사회단체, 교수자의 참여를 통해 실행한 사업은 참여적 교육 영역에서 학습자, 교수자, 담당자의 태도 변화를 확인
 - 학습자 측면 : 지역에 대한 단편적인 이해에서 역사, 생태에 입각한 종합적 이해로 확대
 - 교수자 측면 : 지역과 연계한 학습이 기존의 박물관 교육과는 다르다는 점을 인식
 - 담당자 측면 : 학교 담당자는 지역 연계 참여적 학습의 가치를 이해
 - 주민센터 담당자는 참여를 통해 지역주민의 삶의 질이 증진됨을 확인
 - 활동가는 박물관이 열린 공간이란 점을 확인, 파트너십에 대한 기대 확대
- 지역민 측면 : 학생들의 결과물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 지역을 보는 새로운 관점 확인
- 박물관 측면 : 박물관 스태프들의 참여적 박물관 프로그램에 대한 적극적 태도 변화
- 참여적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박물관 내부의 변화를 확인
-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박물관의 역할 변화 가능성을 확인

3. 타 지역 사례 분석

■ 뮤지엄뉴스 : <https://museumnews.kr>



MUSEUM NEWS

[박협 포스트 >](#)
[이슈 >](#)
[칼럼 >](#)
[전시 >](#)
[교육 이벤트 >](#)
[뮤지엄 즐기기 >](#)
[뮤지엄 스토리 >](#)

• [뮤지엄 커넥션 >](#)

뮤지엄 커넥션



B.U.I.L.D.-ing 공감 구축 : 직장에 활력을 가져오는 전략



합의적 큐레이션과 우리 공동의 미래
 2025-01-28



박물관을 통한 정신 건강 개선: 박물관 공간의 치유 잠재력을 탐구하는 이탈리아
 2024-12-31



박물관과 비디오 게임: 아르헨티나에서 개발된 두 프로젝트의 이야기



논바이너리 예술가를 서술하는 방법에 대한 권고

< 뮤지엄뉴스 - (사)한국박물관협회 운영 >

II. 기존 연구 및 사례 분석

- 뮤지엄 커넥션 :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서의 박물관-3 2022-09-20
- 박물관의 역할을 재난 대응 기관으로 확대, 지역의 재난에 적극적인 대응
- 재난 상황에 즉각적 대응을 넘어 기후 위기로 인한 환경성 재난, 물 자원 등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국제예술과학박물관 (International Museum of Art & Science)	미국혁명박물관 (Museum of the American Revolution)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년 2월, 겨울 폭풍우가 발생하여 난방, 전기, 물 공급이 끊긴 텍사스 매캘런 주민을 위한 주간 한파 쉼터로 전환한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2월, 4단계 경보 화재로 피난한 이웃에게 쉴 곳을 제공하고 음식을 지급한 사례

- 칼럼 : <문제는 ‘생활 민주주의’ 구현이다>, 『뮤지엄 뉴스』, 2019-02-12 고영직
- 박물관의 사례는 아니나 서울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지역주민들이 도서관 건립 과정에서 운영까지 참여해 문화자치의 모범사례로 꼽힘
- 이용자와 운영자가 일치함으로 상호 간의 역할 구분 및 간격을 없앤 사례

서울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	--

- 구산동 도서관 마을은 마을의 주민들이 도서관을 직접 운영한 전국 최초 사례
- 연립주택 3채를 연결하여 만든 도서관으로 마을의 형태를 간직한 독특한 건축 형태

- 칼럼 : 주민의 삶을 담아낼 ‘마을박물관’ 프로젝트 ①, 『뮤지엄 뉴스』, 2020-12-15 배성수
- 인천 미추홀구의 마을박물관은 전문 학예사가 아닌 주민들이 주도해 운영하는 박물관 모델. 인천시립박물관은 이런 주민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로 교육, 전시기획 지원 등을 통해서 협업구조를 형성

인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



- 2015년 인천시 미추홀구 용정근린공원에 컨테이너로 시작 (현 용현2동 내 위치)
- 2014년 인문도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마을박물관을 조성
- 마을주민이 큐레이터가 되어 일상적인 조사, 발굴, 기획을 맡음
- 박물관은 기획과정 및 전시과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마을주민 큐레이터와 협업

4. 종합 분석

▮ 박물관의 역할 확장

- 전통적인 유물 보관 및 전시의 역할에서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종합적인 역할이 요구됨
- 2020년 기존 연구에서 박물관 역할의 확장을 강조, 지역의 이야기를 채집하는 아카이빙 주체이며 이를 기획, 제공하기까지 역할의 필요성을 강조
- 문화기관의 기본적인 역할에서 지역과의 연계를 통한 종합 문화거점의 역할 대두
- 단행본 『참여적 박물관』에서 박물관을 지역의 이슈를 알리는 주체이자 교육, 전시, 체험의 다양한 방식을 채택하는 주체로 설정
- 실학박물관은 경기문화재단 소속 기관으로서 박물관의 역할 확장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동시에 역할 확장에 필요한 다양한 사업, 예산, 인력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됨

II. 기존 연구 및 사례 분석

- 실제로 인근 지역에서 재단 내 타 부서 사업(지역문화자원 재생사업, 경기도에코뮤지엄 등)이 진행되고 있어 각 사업과의 연계 가능성이 높은 상황

■ 이용자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박물관 이용자와 운영자의 간극을 줄이기 위해 박물관 이용자를 박물관으로 적극 유도
- 타 지역 사례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이용자를 운영자로 참여하도록 운영
서울 구립 구산동도서관마을, 인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의 사례처럼 프로젝트의 부분적 참여 수준이 아니라 과거 이용자로 설정되었던 지역주민이 문화기관을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채택. 이용자의 성장을 통한 참여가 단발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인 활동이 가능함을 확인한 사례
- 남양주, 양평군의 다양한 활동 주체들의 전문성은 타 지역보다 높은 편이며 이를 활용하여 연계하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가능한 환경
- 전시기획 과정의 참여 수준을 넘어 지역이 가진 환경, 인문, 사회적 이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며 이용자들이 박물관을 친숙하되 새롭게 인식
- 지역 연계 참여적 박물관 프로그램 사례 연구에서처럼 지역의 환경, 수자원의 문제에 있어 적극적으로 박물관이 참여하면서 함께 다양한 작업을 수행한 그룹의 성장과 박물관에 대한 인식개선을 사례에서 확인
- 박물관이 보유한 주제를 광의로 해석하여 박물관이 지역사회 문제에 적극적으로 결합했을 때 박물관이 차지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위상 확인 가능
- 실학박물관이 위치한 조안면 지역은 환경에 대한 이슈가 강한 지역으로 이를 중심으로 활동하는 다양한 주체들과 협업이 가능

■ 박물관과 거버넌스

- 관련 프로그램의 기획, 운영, 피드백 전 과정을 박물관 단독이 아닌 기획자, 유관기관과 함께함으로써 각자의 전문성에 맞는 시너지효과 발생
- 기존 2020년 연구에서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를 주요하게 다루었다면 지역 연계 참여적 박물관 프로그램 사례 연구는 지역에서의 기획, 유관기관과의 협업 사례에서 각 주체가 어떻게 성장하는지 또한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는지를 다루고 있음. 다양한 주체들의 참여는 프로젝트의 시너지는 물론 주체들의 인식개선, 성장을 유도

- 홍보, 참여자모집, 결과물 공유 등을 기획자, 유관기관과 함께 할 경우 각 기관의 예산을 아울러 활용할 수 있음은 물론 시설, 설비, 공간, 인프라, 네트워크를 공유함으로써 박물관의 단독 사업을 넘어서는 성과를 낼 수 있음
- 단일 사업의 확장성은 물론 순차적이고 유기적인 사업 연계를 통해서 각 사업의 시너지 발생

■ 박물관의 플랫폼화

- 박물관 공간을 다양한 이용 주체, 유관기관이 공유하는 공간 플랫폼으로 활용할 경우 공간 활용성이 확대되며 각 주체의 공간 플랫폼으로 활용
 - 박물관 공간 중 부속시설을 이용한 지역 협업 사례가 다수 관찰되며 코로나19, 재난 대응 등에 있어서는 전시관까지 그 역할을 확장하는 사례를 확인. 박물관이 갖는 공간적 인프라를 활용하는 측면에서 실학박물관 역시 열수홀, 주차장, 다산정원을 활용하는 다양한 방식의 공간 거점 역할을 수행 가능
- 박물관이 지역사회의 기획,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활동하며 지역 내의 다양한 공간을 지원하여 박물관 공간에 한정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를 활동공간으로 설정
 - 인천 토지금고 마을박물관의 사례는 지역의 박물관이 지역주민과 함께 파트너십을 맺고 지역의 이야기를 채집한 사례로 박물관은 지속적으로 지역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마을박물관은 현재 4개까지 확장, 활동의 능동성은 자원봉사 활동이나 프로젝트 단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적극적인 운영의 형태로 발전
 - 경기문화재단의 지역문화자원 발굴 및 재생사업을 통해 조안면 송촌리에 용진정미소가 발굴 재생되면서 지역의 거점 공간 역할을 수행 중. 이에 실학박물관의 기획과 역량이 연계된다면 발굴, 조성된 공간의 활성화와 지역의 문화예술 주체, 주민들과 소통 및 협업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판단

III. 사업 결과 분석

1. 인터뷰

■ 인터뷰어 모집

- 연구원들이 인터뷰어로 인터뷰 작업 참여

연번	이름	이력	거주지	인터뷰
1	강보영 (연두)	- 지역생태활동가 - 두물머리관광안내소 안내요원	양평군 거주	6건
2	김채진 (이제)	- 문화예술기획자 - 전) 실학박물관 뮤지엄 습 운영 인력	남양주 거주	5건
3	신은경 (해빛)	- 예술가 (화가) - 용진정미소 프로젝트 참여자	남양주 거주	5건

■ 인터뷰이 선정

- 실학박물관 사업의 기참여자, 지역의 농업, 생태, 먹거리, 교육, 문화예술, 복지, 청년을 키워드로 연구원들과 지역 조사 및 인터뷰 대상 선정
- 인터뷰 일정을 2024년 12월 내로 설정. 인터뷰 가능 여부 확인을 통해 인터뷰이 확정

■ 인터뷰 진행

- 2024년 12월 한 달간 총 16건의 인터뷰 진행
- 인터뷰어 최종 선정 9건 개인 인터뷰, 7건 FGI로 진행

	인터뷰 대상	소개	일시, 장소	진행
1	김혜리 (일러스트레이터)	귀촌 5년 차 일러스트레이터, 지역 지도, 일러스트 작업 등 다수	24.12.2. 10:00 카페 아뜰리에	강보영
2	최은주 (모퉁이놀이터)	로컬 굿즈 상품을 개발, 유통하는 편집숍 모퉁이놀이터(양수리) 운영	24.12.3. 15:00 모퉁이놀이터	신은경
3	전미경 (능내리 주민)	능내리 주민, 삼봉리 농막 및 농장 운영, 실학박물관 미화 업무 종사	24.12.5. 10:30 삼봉리 자가 농막	김채진
4	최요왕 (양수리 농부)	2004년부터 두물머리에서 농사를 짓는 농부, 4대강 투쟁 참여	24.12.5. 14:00 양수리 자가 농막	김채진
5	두머리부엌 (이연주, 이연주, 최효정)	로컬푸드를 중심으로 한 협동조합 식당인 두머리부엌(용담리) 운영	24.12.9. 15:00 두머리부엌	강보영

	인터뷰 대상	소개	일시, 장소	진행
6	이석준 (릴리스커피)	양수리가 고향인 바리스타, 원두 로스터리 카페 릴리스(양수리) 운영	24.12.11. 11:30 릴리스	김채진
7	반디도서관 (홍세정, 정숙, 최고은, 이효정)	귀촌 이후 송촌초 학부모들을 중심으로 반디도서관(송촌리)의 설립 운영	24.12.12. 15:00 반디도서관	신은경
8	이양희 (팔당두레생협)	2001년 설립된 팔당두레생협의 현 이사장	24.12.13. 14:00 팔당두레생협 진중점	강보영
9	박도희 (두물물농부시장)	양수리 일대에서 두물물 농부시장, 레코우리 농부시장을 운영	24.12.16. 16:00 농부시장사무실	강보영
10	다람쥐 (조혜원, 조호연)	부용리 거주, 로컬푸드를 취급하는 식료품점 다람쥐(양수리) 운영	24.12.17. 11:00 다람쥐	신은경
11	가톨릭농민회 (김현숙, 박정국, 백정은)	가톨릭농민회 두물머리 분회, 뒷골밭에서 활동하는 농업활동가	24.12.18. 10:00 카페 아틀리에	강보영
12	천은선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회의집)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팀장, 와이플래닛은 센터의 별칭	24.12.19. 16:30 양평청소년문화의집	신은경
13	삼치와 이기리 (이효주, 이효진)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성이 담긴 노래를 하는 인디밴드 '삼치와 이기리'	24.12.23. 10:30 자택	김채진
14	바탕 (퍼머컬처활동가)	퍼머컬처 활동가로 전) 탄탄회관 사무국장 역임	24.12.25. 11:00 카페 아틀리에	강보영
15	델레떼 (김지윤, 김성은)	로컬푸드를 주재료로 아이스크림을 만드는 카페 델레떼(용담리) 운영	24.12.26. 10:30 델레떼	김채진
16	용진정미소 (김봉자, 한호석)	공간 재생 프로젝트인 용진정미소(송촌리) 사업에 참여한 지역 어르신	24.12.26. 09:00 송촌1리마을회관	신은경



2. 인터뷰 분석

■ 영역별, 키워드별 인터뷰 구분

- 인터뷰의 주제에 따라 대분류 4개, 세부 분류 5개의 키워드 도출

먹거리		문화, 예술	교육	주민
농업	로컬푸드			
최요왕 (양수리 농부)	두머리부엌 (이연주, 백정은, 최효정)	김혜리 (일러스트레이터)	반디도서관 (홍세정, 정숙, 최고은, 이효정)	전미경 (능내리 주민)
가톨릭농민회 (김현숙, 박정국, 백정은)	이석준 (릴리스커피)	최은주 (모퉁이놀이터)	천은선 (양평서부청소년 문화의집)	용진정미소 (김봉자, 한호석)
박도희 (두물물농부시장)	다람쥐 (조혜원, 조호연)	바탕 (퍼머컬처활동가)		
이양희 (팔당두레생협)	델레떼 (김지윤, 김성은)	삼치와 이기리 (이효주, 이효진)		

■ 각 키워드별 인터뷰 요약

- 먹거리 - 농업분야 : 실제로 농사를 짓고 있는 농부와 먹거리를 유통하는 생협, 농부시장
- 지역의 대안적, 생태적 가치에 기반한 농업의 보전을 위한 생산, 유통체계에 대한 고민

먹거리-농업	인터뷰 요약	문제의식 및 시사점
최요왕 (양수리 농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 태생, 2004년 귀농 후 양수리에서 농업 종사 • 가족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양수리로 귀농 • 초기 귀농에 먼저 귀농한 선배들의 도움으로 자리를 잡음 • 양수리 일대는 전국적으로 유명한 생태농업지역 • 팔당영농조합의 일원으로 활동 중 4대강으로 인해 농지가 수용될 위기에 처하자 투쟁 시작 • 최근의 관심사는 영농조합을 재건하는 일 • 농업지원 체계와 토지 문제 해결이 농부에게는 필수 • 농업과 영농조합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젊은 그룹과 함께 협업하고 즐겁게 노는 공동체 문화가 필요 • 농사와 문화는 떼놓을 수 없어 실학박물관과 문화적인 활동의 협업을 기대 • 주도하지 못하더라도 언제나 돕고 싶은 마음이 있음 	<p>현재 농업정책의 문제와 유통구조의 문제로 농업의 위기</p> <p>농업에 대한 인식개선과 농부들과 지역의 협업 및 공동체 형성을 위한 문화 활동의 필요성 강조</p>

먹거리-농업	인터뷰 요약	문제의식 및 시사점
<p>가톨릭 농민회 (김현숙, 박정국, 백정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주의 계기 김현숙: 두물머리 농지 보존 투쟁을 통해 이주 박정국: 천주교 농부학교를 통해 이주 백정은: 퍼머컬처 캠프를 통해 이주 • 도시가 아닌 생명이 자라는 땅에 대한 고민으로 귀농 • 경력 10년 이내의 중견 농부, 다품종 소량생산 중 • 실학박물관과는 농업을 주제로 한 축제를 통해 농업이 일이 아니라 과거처럼 하나의 즐거운 행사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함 • 교육, 워크숍을 함께 하며 과거 농업을 재조명하며 지금의 농사법과 함께 비교해 보고자 함 • 산업으로써 농업보다 삶으로서 농업에 대한 고민이 깊음 	<p>농업을 산업이 아니라 생명, 평화, 환경의 관점으로 바라보고 현실의 다양한 어려움을 극복하며 소규모, 다품종, 친환경 농업을 진행 중</p>
<p>박도희 (두물물 농부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물물, 레코우리 농부시장 운영자 • 친환경 농업이 활발하고 서울에서 1시간 거리의 입지가 매력적인 지역 • 생태적인 방식으로 농사를 짓는 농부들을 지원하고 싶은 마음에 농부시장을 시작 • 다양한 형태의 농부시장이 있지만 정작 농산물의 판매가 적어 농부에게 도움이 되는 시장의 형태를 고민하며 다양한 실험 중 • 먹거리가 생산되는 과정을 사람들이 이해하고 좋은 먹거리를 찾을 수 있도록 식문화, 요리, 적정기술 프로그램들이 필요하다 생각 • 식량자급, 건강한 먹거리 등에 대한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농업에 대해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한 시점 	<p>농업에 대한 지속적인 관점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실천적인 방식으로 유통방식의 개선, 먹거리에 대한 교육을 강조</p> <p>대안적인 유통체계에 대한 고민으로 다양한 농부시장의 형태를 실험 중</p>
<p>이양희 (팔당 두레생협)</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1년 생산자 중심으로 생협이 설립, 3년 차 이사장 • 이주한 것은 2011년, 조안씨앗도서관으로 알게 됨 • 팔당두레생협은 남양주, 양평, 구리, 하남에 매장을 갖고 있는 규모있는 생협으로 타 생협에 비해 조합원 활동이 활발한 생협 •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여러 규제가 있어 지역에서는 불편을 토로하지만 덕분에 남아 있는 짚풀공예 등의 자원도 많은 지역 • 지역의 주민들과 지역신문, 마을자원 발굴, 답사 프로그램, 자원 순환 활동을 하고 싶음 • 관광객 등과는 식생활 교육 등을 진행해 유기농, 친환경 먹거리를 알리고 싶음 	<p>건강한 먹거리를 지향하는 생협 그중에서도 조합원 활동이 활발한 팔당두레생협이 지역과 함께하고 싶은 다양한 아이디어 확인</p>

III. 사업 결과 분석

- **먹거리 - 로컬푸드 분야** : 지역 농산물을 활용하거나 지역성을 갖는 식료품을 판매하는 자영업자
 - 지역 내 양질의 로컬푸드의 상품을 넘어 재배 환경에까지 관심과 고민이 있음을 확인
 - 지역 내 청년 그룹의 네트워킹 및 활동 확장의 의지 확인

먹거리 로컬푸드	인터뷰 요약	문제의식 및 시사점
두머리부엌 (이연주, 이연주, 최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4년 지역에서 외관만 문제지 맛이 좋은 농산물이 버려지는 것이 안타까워 두머리부엌을 설립 • 협동조합의 방식으로 운영하다 전문적인 운영을 위해 위탁운영의 형태로 전환 • 실학박물관과 농부장터, 케이터링 협업, 자원순환 생태 교육 등을 함께 하고 싶음 • 프로그램으로 퇴비 만들기, 생태인문학여행, 지역이야기 수집 및 아카이빙 후 굿즈 제작 	<p>버려지는 로컬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음</p> <p>지역성, 지역의 식재료를 중심으로</p>
이석준 (릴리스커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리가 고향이어서 귀촌한 사례 • 지역에서 자라고 교회 전도사 생활을 하며 교통망이 가장 아쉬웠음 • 다소 배타적일 수 있는 양수리 상권에 안착 가능했던 것은 조부모와 부모님이 지역활동을 한 덕분 • 상인들과 농부 사이에 이해관계가 충돌하는 지점이 있음 • 원두를 좋아하고 카페를 확장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음 • 실학박물관이 다양한 홍보를 해주었으면 함 • 지역에 커피를 중심으로 지역커피 등을 만들어보고자 함 	<p>귀촌한 청년의 정착 과정을 통해 지역의 보이지 않는 울타리, 상업과 농업 간의 이해관계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p>
다람쥐 (조혜원, 조호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대강 투쟁을 하면서 지역에 애착이 생겨 정착 • 농사를 직접 짓고 있으며 지역 농산물로 다람쥐의 상품을 만들어 판매 • 지역의 농민, 활동가들의 아지트 같은 공간으로 운영 • 지역의 주민, 청소년들도 편히 찾았으면 좋겠음 • 실학박물관에서 실학의 현재적 의미와 더불어 생활기술을 모아 실학적 의미로 설명해 주면 좋겠음 	<p>대안적인 삶에 대한 고민을 통해 4대강 투쟁부터 지역에 정착한 청년 농부, 소상공인의 삶을 통해 대안적 공간으로 양평을 재조명</p>
텔레떼 (김지윤, 김성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에서 요리를 전공하고 자리를 잡은 것이 서종의 레스토랑이었는데 지역이 마음에 들어서 정착 • 텔레떼의 이름처럼 생산자, 판매자, 소비자 모두 즐길 수 있는 가게였으면 함 • 아이스크림은 모두가 좋아하고 지역의 생산물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어서 좋음 • 지역 청년들이 없어 외로움 • 지역에서 원재료가 나는 농장에 가서 체험하고 바로 음식을 해먹어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함 • 지역 먹거리를 중심으로 투어 맵을 만들어 로컬푸드 매장을 투어할 수 있으면 함 	<p>먹거리의 제조, 판매에서 원재료, 생산자까지 확장되는 깊이 있는 철학을 확인</p> <p>지역 내의 네트워킹 및 연대사업에 대한 욕구 확인</p>

• 문화, 예술 분야 : 지역의 사람과 이야기를 통해 활동하는 문화예술인, 활동가

- 생태적, 대안적 삶과 수도권 접근성이 높아 매력적인 지역
- 지역을 주제로 하는 다양한 창작 활동을 하고자 하는 의지가 강함

문화, 예술	인터뷰 요약	문제의식 및 시사점
김혜리 (일러스트 레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태적인 삶에 관심이 많아 2019년 두물머리 이주 • 농사를 지으며 일러스트레이터로 살고 있음 • 먹거리에 대한 고민으로 시작, 4대강 투쟁 등을 통해서 지역의 다양한 청년들과 알게 됨 • 서울과 가까운 지역이라 이점이 있지만 동시에 지가가 높아 지속가능성에 대해 고민 • 실학박물관에서는 전시 및 농사와 관련된 실험을 해보고 싶음 • 지역에 거주하는 할머니들에 대한 관심이 많아 삶과 이야기를 조명하는 잡지, 달력 등을 만들어보고 싶음 • 절기별 프로그램을 만들어 함께해도 좋을 것 같음 • 지역사회의 벽을 느끼기도 해 이를 해결할 방식과 함께 지내는 공동체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방식에 답을 찾고 싶은 부분이 있음 	<p>생태적인 매력으로 지역에 정착한 청년예술가가 바라보는 지역에 대한 시선을 확인</p> <p>지역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하는 다양한 창작 활동에 대한 기대</p>
최은주 (모퉁이 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리에서 로컬굿즈와 소품을 판매하는 소품숍 운영 • 독립출판 에세이 작가 • 몸과 마음의 휴양을 위해 2016년 양수리로 이주 • 사고파는 상품을 넘어 지역의 가치를 담는 굿즈를 만들고 유통하는 일을 함 • 실학박물관에는 그림책 수업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박물관의 결과물을 모퉁이놀이터에서 판매연계도 가능 • 북마켓, 북토크 같이 지역의 창작자를 모으는 작업을 하고 싶음 	<p>지역의 이야기가 담긴 굿즈의 다양한 사례를 확인하였으며 협업의 의지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보유</p>
바탕 (퍼머컬처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머컬처 활동가로 양평에서 진행된 교육에서 지역이 마음에 들어 정착 • 청년 공간인 탄탄회관의 사무국장 역할을 3년간 수행 • 두물머리를 청년들이 퍼머컬처의 시각으로 꾸미는 활동을 하고 싶음 • 실학박물관과는 전시, 의사결정 워크숍 등을 하고자 함 	<p>퍼머컬처에 입각한 생태, 소통, 청년의 활동을 지역 내에서 다양하게 펼쳐 보고자 함</p>
삼치와 이기리 (이효주, 이효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촌리 거주 3년차 인디밴드 • 아이를 학교에 보내며 지역주민과 교류하지만 이주민에 대한 벽을 간혹 느낌 • 지역을 주제로 한 곡을 쓰고 지역 행사에서 공연 • 어쿠스틱 페스티벌 등 지역에서 다양한 곡을 만들고 공연하고 싶음 	<p>인디뮤지션으로 활동과 휴식의 균형 면에서 이 지역이 매력적 지역에서 다양한 활동을 원함</p>

III. 사업 결과 분석

• **교육 분야 : 지역의 아동, 청소년 교육을 위해 힘쓰는 활동가 그룹**

- 혁신학교, 자연환경 등 대안적 교육의 최적지인 지역이나 기타 교육, 돌봄 인프라의 부족과 청소년 이동권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지역 내에서 자립적인 활동을 진행
- 청소년 지원 활동에 있어 인력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관과 연계를 모색하고 있음

교육	인터뷰 요약	문제의식 및 시사점
반디도서관 (홍세정, 정숙, 최고은, 이효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혁신학교인 송촌초등학교에 자녀를 보내며 모임 • 지역에 부족한 교육, 돌봄의 문제를 해결해보고자 모여서 반디도서관을 창립 • 어린이뿐 아니라 어른을 위한 공간이기도 함 • 부모들이 모여 함께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는 공간 • 마을회관 공간을 공동체 사업으로 리모델링 하여 운영하며 처음에는 낯설어하던 주민들이 반김 • 아이들과 정약용 선생님 교육을 하거나 떡케이크 체험, 박물관과 도서관 프로그램 연계를 하면 좋겠음 • 물의 정원에서 아이들과 함께하는 축제를 하고자 함 • 교사를 구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음 	<p>자녀들을 위한 자립활동이 지역 학부모들의 네트워크로 확장</p> <p>자체적인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다양한 연계 활동을 원함</p>
천은선 (양평서부 청소년 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청소년문화의집에 22년부터 근무 • 남양주의 친구들도 함께 어울리고 있음 • 청소년이 행복한 지역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으며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과도 교류 • 청소년 이슈를 함께 다루고자 서부교육네트워크를 조직해 운영 중 • 코로나19 이후로 소강상태인 청소년 동아리를 활성화 하고자 함 • 실학박물관이 실학을 역사 외에도 생존 요리 등으로 확장해서 함께 청소년들과 어울려도 좋겠음 	<p>아이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과 지역 내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청소년 활동을 지원</p>

• **주민 : 지역에서 살아가는 주민의 입장**

- 규제지역에 대한 지역주민의 답답한 심정을 확인, 삶의 기술을 나누고자 하는 의욕 확인

주민	인터뷰 요약	문제의식 및 시사점
용진정미소 (김봉자, 한호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결혼과 동시에 이주해 50년 이상 거주한 할머니 인터뷰 • 지역이 다양한 규제로 개발이 제한되어 재산권이 묶여 있는 것이 안타까움 • 용진정미소에서 진행했던 프로그램이 지속되면 좋겠음, 보건소가 활성화되어 건강프로그램이 많으면 좋겠음 • 들풀, 벌레 같은 생명의 이름을 알려줄 수 있으며 메주 쐬는 것 같은 삶의 기술을 나누고 싶음 	<p>지역주민 입장에서 규제지역의 불편함을 확인</p> <p>삶의 기술들에 대해 나누고자 하는 의지를 확인</p>

주민	인터뷰 요약	문제의식 및 시사점
전미경 (능내리 주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목수일을 하는 남편의 작업장을 마련하기 위해 20년 전 귀촌 • 마을 아이들과 마음일기 프로그램도 운영 • 현재 거주하는 마을을 부영이 마을로 만들어가는 미술작업, 온라인 카페 개설 등 마을에서 봉사 • 생협 봉사를 하며 생협활동에 집중 • 지역 활동을 하다 보니 주민자치회, 생협에 아는 사람들이 늘었음 • 실학박물관에서 박물관 1박 2일 독서 모임 등을 해봐도 좋겠음 • 이전에 했던 목회숨을 직접 기르고 조끼를 만들어보는 활동 등은 지역에서 반응이 좋았으므로 지속하면 좋겠음 • 지역에 규제가 많고 대안적인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 재산권이 묶이는 경향이 있어 지역주민 입장의 이야기가 있으면 함 	<p>지역에서 다양한 활동과 봉사를 하며 여러 아이디어를 가진 주민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음</p>

3. 인터뷰 결과 요약

■ 대안적 삶 VS 규제지역

- 농업, 먹거리, 문화, 예술, 교육 영역에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로 인한 생태농업 등이 매우 큰 장점으로 작용하였으나 주민 영역에서는 이에 대한 재산권 행사 불가가 큰 단점으로 부각
- 단, 규제의 정도가 다른 양수리와 조안면 송촌리의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서울의 인접지역

- 양평과 남양주의 경우 서울과의 인접성이 매우 큰 장점으로 꼽히는 동시에 장점에 따른 높은 지가는 지역에서의 생활을 지속하는 데 단점으로 작용

■ 부족한 인프라와 자주적인 활동, 네트워크

- 교육, 돌봄, 문화, 교통, 생활 인프라의 부족이 단점으로 반복 지적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자립적 활동, 연대 활동 등을 통해 해결하려는 다양한 실천이 활발
- 네트워킹에 대해서는 다양한 욕구가 있어 네트워크의 핵으로 실학박물관이 역할을 해주었으면 하는 의견을 다수 관찰

■ 농업과 로컬푸드에 대한 적극적인 고민

-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부, 가공하는 자영업자 그룹에서 로컬푸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확인. 두 그룹의 협업이 기존에도 진행되고 있으나 다양한 방식으로 협업의 장을 마련할 경우,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

III. 사업 결과 분석

- 생산 방식에 대한 고민을 넘어 가공, 유통 방식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확인

■ 생태농을 넘어선 대안농법에 대한 고민

- 규제지역이기에 강제로 이뤄지는 유기농, 생태농을 넘어서 농산물과 필요한 부자재의 이동 거리, 식량 주권까지 고민하는 적극적인 형태의 대안농업에 대한 고민 및 실천을 확인

■ 실학박물관과의 협업을 넘어선 지역 연계의 의지

- 실학박물관의 입지, 시설, 예산을 활용하여 협업하는 방식을 넘어서 실학박물관이 기획 및 네트워크의 핵으로 기능하며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 아이디어가 다수 도출

4. 네트워크 파티

■ 기획의도 및 배경

- 인터뷰를 통해 지역 네트워크의 필요성을 확인
- 각 분야별 네트워킹 경험은 있으나 분야를 넘어서는 네트워킹에 대한 욕구 확인
- 실학박물관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다수이므로 박물관을 방문하는 경험을 제공

■ 네트워크 파티 개요

- 네트워크 파티 개요
 - 추진대상 : 실학박물관 인근 지역(남양주시 조안면, 양평 양서면) 주민 및 활동가 50명
 - 추진일시 : 2025년 1월 20일(월) 14:00-17:30
 - 추진장소 : 실학박물관 안 곳곳(열수홀, 로비, 상설전시실 등)
 - 참여대상 : 지역주민, 활동가, 예술가, 농업종사자, 기획자,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50명
 - 추진내용 : 사업 소개 및 참여자 소개(네트워킹), 후속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 도출

시간	일정	장소
13:30-14:00	접수 및 안내	로비
14:00-14:20	모임 열기, 여는 공연, 인사 말씀, 사업 소개	주차장, 열수홀
14:20-15:20	마음 열기, 얼굴 그려주기, 키워드 자기소개와 빙고	열수홀
15:20-16:30	실학박물관 둘러보기, 서로의 걸음 둘러보기	상설전시실, 열수홀
16:30-17:30	이어가기, 우리 동네 먹거리와 이야기 나누기	로비

5. 네트워크 파티 도출 의견

■ 마음열기 : 50인의 참여자가 자기소개 및 아이스브레이킹 프로그램 진행



■ 서로의 걸음 둘러보기 : 50인의 참여자를 5모둠으로 키워드별 구분, 자유로운 소그룹 토의 진행

- 농사 주요 키워드
 - 유기농 농사법 공부(개인)와 자연 순환을 고려한 퇴비 자급자족(사회)의 필요
 - 먹거리 자급자족을 넘어 농사 작업에서 마주하는 기쁨과 슬픔, 공동체의 중요성
- 먹거리 주요 키워드
 - 지역 먹거리의 소중함과 유기농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판매를 증진하는 방법
 - 농부와 농산물, 식재료를 활용해 메뉴를 만드는 전문가의 콜라보가 필요
 - 생협이 교육 목적 프로그램과 텔레페의 대중 친화 접근법
 - 먹거리로 접근해 양평 지역의 이야기를 함께 알리고, 지역 방문을 촉진하는 방법 구상
- 예술 주요 키워드
 - 생활을 담아내는 예술 작품, 돈이 되지 않아도 유지하는 원동력은 ‘재미’
 - 예술이 만들어낼 역량을 믿음, 적재적소에 활용될 제대로 된 기획이 필요
- 교육 주요 키워드
 - 실학은 의식주, 생활, 실천 중심
 - 지역 활동가(농부, 예술가, 생산자) > ‘실학’ > 초등학생을 충족하는 프로그램의 욕구
 - 박물관 : 지역의 범위를 넓혀 다양한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면을 발견할 필요
 - 학교 : 저학년/고학년, 1-2학년/3-4학년/5-6학년 등 단계별 교육 프로그램의 욕구

III. 사업 결과 분석

- 지역 활동가의 특화 지점을 초등학교 교육 과정과 연계한 프로그램 개발이 중요
- 아이들이 혼자 생활할 수 있도록 소소한 교육부터 정원 문화를 가까이하는 것까지 망라
- 마음 주요 키워드
- 마음 알아차림과 정리
- 혼자만의 시간, 나를 위한 취향들
- 나를 알아가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과 내 호흡



6. 네트워크 파티 종합 분석

■ 서로를 알아가는 시간

- 50인의 참여자의 자기소개를 전부 진행, 얼굴 그려주기, 빙고게임 등으로 참여자들이 서로 소통하는 시간을 가짐
- 그룹별 토의를 통해 같은 주제를 공유하는 참여자들의 논의 진행, 서로의 활동을 공유하고 앞으로 해보고 싶은 일을 공유함으로써 상호 간 이해와 관계망 형성

■ 실학박물관을 알아가는 시간

- 인터뷰 참여자 중 절반 이상이 실학박물관을 모르거나 이름 정도만 알고 있었기에 실학박물관에서 진행된 네트워크 파티는 상호 간 연결뿐 아니라 실학박물관이 지역에 연결된 계기
- 박물관의 전시공간에서 진행된 그룹별 토의는 경직되고 일방적인 공간이 아니라 서로 논의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함

■ 함께 꿈꾸는 시간

- 지금까지의 활동과 올해의 계획을 서로 나누며 지역에서의 다양한 활동들과 연대를 꿈꾸는 시간

주제	내용
농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업으로서의 농업과 삶으로서의 농업을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 • 생태농을 넘어 대안농으로의 삶을 고민
먹거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를 단지 소비의 대상이 아닌 만들어지는 과정, 유통되는 과정, 가공하는 과정 등 전 과정에 걸쳐 고민하고 이를 문화적으로 확장하는 작업 필요 • 매력적인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며 먹거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의 필요
예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지역은 예술작업을 하기에 좋은 공간 • 생태환경, 자연물 재료에서 오는 예술적 성찰과 영감이 큰 장점 • 큰 담론보다는 지역 사람들의 이야기를 찾고 작품으로 만드는 활동에 집중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과 가장 닿아 있는 교육은 나의 일상의 의식주를 인지하고 직접 만들어나가는 방식 • 실질적인 배움을 위해 지역의 여러 네트워크가 활동하고 있음 • 부족한 인프라를 자조적인 노력으로 채우고 있으나 다양한 연대와 도움이 필요한 상황
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힘든 마음을 달래는 것은 나의 호흡을 되찾고 나의 일상을 되찾는 것 • 나의 세계를 정리하는 과정은 혼자만의 일이기도 하지만 지역에서 만난 관계들이 힘이 됨

7. 라운드테이블

■ 기획의도 및 배경

- 인터뷰, 네트워크 파티를 통해 도출된 지역의 다양한 욕구 및 의견을 숙의하는 논의 테이블 구성
- 인터뷰, 네트워크 파티에 참여하지 못했지만 도출된 의견을 논의하는 데 필요한 참여자를 추가, 함께 라운드테이블을 진행하여 논의 확장

■ 라운드테이블

- 라운드테이블 개요 : 3개 분야 라운드테이블 운영, 참여자 16인
- 라운드테이블 참여자 : 인터뷰, 네트워크 파티 진행 및 추천을 통해 각 주제별 참여자 구성

주제	일시, 장소	참여자	
교육	25.2.5. 14:00 실학박물관	김은아 (송촌초 교사) *	정숙 (반디도서관) *
		신미숙 (풀씨지역아동센터)	안창진 (진중교회)
		천은선 (와이플래닛) *	
문화예술	25.2.10. 10:00 실학박물관	최은주 (모퉁이놀이터) *	이효주 (삼치와 이기리) *
		신은경 (예술가) *	바탕 (퍼머컬처활동가, 도예가) *
		김양현 (용진정미소)	
농사, 먹거리	25.2.14. 13:00 실학박물관	김지윤 (텔레떼) *	박도희 (두물물 농부시장) *
		조호연 (다람쥐) *	최요왕 (농부) *
		이연주 (두머리부엌) *	이양희 (팔당두레생협) *

8. 라운드테이블 도출 의견

교육

- 주요 논제 : 지역의 아동청소년 교육현황 및 해결방안

참여자	내용
풀씨지역아동센터 신미숙	<p>■ 교과부터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지역아동센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아동센터는 교육, 문화, 보호, 지역사회 연계, 정서 부분을 채워주는 프로그램이 필수적임. 하교 후 학원에 가지 않는 친구들이 머무는 곳이므로 교과부터 생활 전반을 책임지는 곳임 • 책임감이 막중하고 아이들이 센터에 머물며 변화하면 보람을 크게 느낌. 초등 1-4학년까지 4년 정도 센터에 다니고, 5-6학년이 되면 서부청소년센터로 이동함 • 생협에서 출발한 센터라 유기농사를 중심으로 먹거리 교육하고 유기농 식재료로 급식을 제공함 • 교과 공부는 국어, 수학, 영어 중심이며 매일 30분 책 읽기로 미디어보다 책을 통한 상상력을 계발하고 수학 문제집 원어민 선생님과 대화로 교과 과정을 복습함 • 차가 없어서 이동이 어려운 편임에도 방학에는 센터가 텅 빌 정도로 곳곳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함 • 일차적으로 센터가 아이들을 돌보지만 넓게는 마을이 돌보는 것이기 때문에 돌아다니는 편. 방학마다 지하철, 버스, 걷기를 통해 지역보다 서울에서 체험 활동. 공공장소에서 취해야 하는 행동, 태도를 알려줌
	<p>■ 문화예술교육자 양성을 위한 교육, 활동가 강사 연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모, 주민이 직접 문화예술교육 할 수 있게 사전교육하고, 프로그램 강사로 활약할 활동가 연결 등 네트워킹 다음으로 연결되고 확장되는 일이 필요함 • 지역주민이 교육의 중심이 되면 지역아동센터와 연결하고 파견하는 것이 가능함 • 모임 참여자에게 집중적으로 물어서 어떤 걸 하고 싶으며, 하고 싶은 걸 어떤 문화예술기획단체와 연결해 시너지를 낼지 고민해 봐야 함. 교육의 방향을 좁혀가는 게 중요함. 교과과정 기반, 기존대로 하는 교육 외에 새로운 기획, 기획자가 구심점이 되면 좋을 것. 구심점은 학교 내에 있는 선생님, 센터 담당자 등이어야 안정적으로 유지, 운영될 것. 특히 아동청소년에게 묻지 않고 해당 분야 종사자들이 얘기하는 일은 교육 방향 설정에 부족하다고 생각됨. '모험놀이터'가 좋은 사례. 수요자인 아동청소년의 후기가 가장 좋았으나 장소가 부족해서 더 만들지 못하는 실정임. 실학박물관의 마당, 정원을 이용해 모험놀이터를 운영할 수 있다면 좋을 것
	<p>■ 풀씨지역아동센터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문화예술교육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네트워킹의 필요 • 아동, 지역의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하고 사업을 운영할 기획 단위를 구성 • 모험놀이터 같이 아동청소년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실학박물관 정원에 조성

참여자	내용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송촌초교사</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지역의 아동 청소년 교육현황</p>	<p>■ 삶과 배움을 연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과 공간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촌초등학교는 14년차 혁신학교로, 삶과 배움의 연계, 자기주도성을 중점에 두고 교육, 무학년제 활동, 주제별 체험학습, 발도르프 수업, 돌봄교실/늘봄, 마을주민과 어우러지는 프로그램들, 인근 학교와 공동 활동 등으로 지역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다양하게 시도하고 만들어가는 편 · 4년 전 '이음' 혁신사업을 따와서 팔당생협, 지역활동가들과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했으나 현재는 축소된 상황임. 교사의 전출, 기존 업무 외 추가 업무량이 과도함. 예산 지원 중단, 공동체 간 협업 도모의 어려움 (갈등 상황)이 있었음 · 매달 여러 번 체험학습을 가기에 교과과정 (국어, 사회, 미술, 음악 등) 중심으로 연결된 장소를 물색, 이동할 수밖에 없음 · 2024년에는 업무협약을 맺어 사이버폭력예방 프로그램을 체험하고, 시립박물관에서 남양주 탈춤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수업의 장이 넓어짐 · 1-2학년은 돌봄, 3-6학년은 늘봄 선생님이 상주함. 예산 문제로 기존보다 시간은 축소되었으나 방과후 학생들의 안전 측면에서 돌봄/늘봄 프로그램이 필요함. 지역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효용성 있을 것 · 마을에 집이 없으면 등하교가 어려워 입학하지 못함. 부모님의 결단이 있어야 올 수 있음. 자연환경은 좋으나 교통이 불편한 점이 늘 고민임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김민아</p>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p>	<p>■ 교과과정 연계한 실학 프로그램, 원데이클래스 개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술 (단단한 건축물 예시로 언급되는 '수원화성', 어제의 미술과 오늘의 미술로 다룰 수 있는 '정약용 선생의 작업과 미술품 연계) · 국어 (이야기를 듣고 추론하는 방법에 언급되는 '수원화성', 인물의 삶을 찾아서 '이순신 장군'과 실학자들 연계) · 과학 (목화 키우고 솜으로 작품 만들기) 연계 실학 프로그램이 필요함 · 일상적으로 여유롭게, 깊이 있는 교육 진행되길 바람. 원데이클래스의 경우 일정이 빠르게 정리, 공유된다면 체험활동 계획에 큰 도움 <p>■ 정보 공유할 커뮤니티, 교통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사가 자체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예술가 풀이나 새로운 정보, 홍보 등이 모일 수 있는 카카오톡 단체방이 있다면 좋을 것. 교내 선생님이 적다 보니 정보만 있어도 섭외 및 행정 처리가 수월함 · 스쿨버스가 있지만 부득이한 상황을 고려해 교통지원 요청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시사점, 아이템</p>	<p>■ 송촌초등학교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과과정과 연계한 실학박물관의 원데이클래스 수업 · 교육 관련 자원, 인력,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커뮤니티 필요 · 이동권이 취약한 환경을 고려해 교통지원 요청 (버스 등)

참여자		내용
안창진 진중교회 / 조안마을사회적협동조합	지역의 아동 청소년 교육현황	<p>■ 아동청소년 대상 축구교실 운영 (공유학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도 하남, 마석, 양평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고학년-고등학생 20여 명과 조안면 신축 축구장에 모여 축구교실 운영. 토요일 오전 9-11시, 낮 12시까지 짧게 하는데도 시험기간을 제외하고 참여도, 만족도가 높음. 학부모도 교육이 지속되길 바란다는 피드백이 많음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놀이터,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아이들의 구심점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안면은 놀거리가 부족해 아이들이 하교 후 집에만 머뭄 인근 다산동만 해도 집 밖으로 매일 나가는 일상을 보낸다고 함. 놀이터 같은 구심점을 통해 아이들의 동선이 집 밖으로 확장되길 바람. 실학박물관이 지역 공간 역량과 발달 부분을 담당해 준다면 좋을 것 월 1회-격주 간격으로 정약용 중심 실학, 인문학 클래스를 실학박물관에 개설하는 방법을 제안함. 교통편이 불편해 이동하지 못하는 걸 감안해 교통지원을 요청
	시사점, 아이템	<p>■ 진중교회, 조안마을사회적협동조합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놀이터 같은 야외 놀이공간의 구심점이 필요 청소년을 위한 실학, 인문학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을 요청 이동을 위한 교통지원을 요청
이종인 양평문화재단	지역의 아동 청소년 교육현황	<p>■ 지역문화재단은 지역 문화예술교육자 발굴, 양성하는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23년까지 교육사업을 담당하며 예술가들과의 갈등으로 소통이 원활하지 않았고 비협조적인 태도였음. 양평에 지역 예술가는 많지만 교육자보다 예술가로 활동하길 원해서 문화예술교육자는 부족함. 그래서 재단이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하기보다 지역 문화예술교육자를 발굴, 양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판단함 지역중심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2년차. 1년차에는 양평 내 교육현황조사, 거점 워크숍, 실무 교육 (정산 지원서 작성 등)을 진행 신청자의 1/6 가량 (5명)이 자발적 모임을 결성해 역량을 다져가는 중이고, 2026년에는 문화예술교육을 진행할 수 있을 거로 기대함 양평이 경기에서 가장 넓은 지역인 만큼 재단에서 모든 곳을 아우른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는 담당자 혼자서는 역부족임 교육지원청과 협력하기 쉽지 않지만, MOU를 맺더라도 인사이드가 찾아 연속을 기대하기 어려움. 의지 있는 선생님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이고 찾더라도 교육청과 재단의 시계가 달라 연계할 기회가 줄어들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문화예술교사 파견, 마을에서 함께하는 커뮤니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붕 없는 에코뮤지엄처럼, 예술가 또한 현재 다시 실학을 공부하며 새로운 관점으로 접근하면 없던 게 생길 것. 지역 범위를 넓혀간다면 실학박물관이 원하는 방향과도 맞지 않을지. 예술가들과 실학 정신을 공부해보고 작업으로 녹인 후 마을로 들어가서 선생님들과 교육해보는 것 제안. 실학이자 교육이자 예술이 되는 현장을 기대함
	시사점, 아이템	<p>■ 양평문화재단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문화예술교육자의 필요성 증대, 재단은 사업 운영보다 발굴, 네트워킹의 필요성 절감 실학 정신을 학습한 예술가들을 지역의 문화예술교사로 양성하는 과정을 요청

참여자	내용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천은선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p> <p style="text-align: center;">지역의 아동 청소년 교육현황</p>	<p>■ 자기 삶의 주인이 되고 매 순간 성장하는 양평서부 청소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종, 옥천, 양서면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4층 규모의 센터에는 통합복지관, 청소년문화의집, 중등지역아동센터가 있어서 휴무 없이 모두가 이용하는 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함. 지역 내 청소년 놀 곳이 부재함을 깨닫고 공간을 마련한 만큼 센터 내에는 코인노래방, 닌텐도 게임, 댄스연습실 등을 마련해 놀 권리를 충족시켜줌. 2024년 시설 방문자수는 청소년 기준 2만 8천 명 정도 하루 평균 70-80명이 이용하는 셈. 방문자의 70%가 초등학교 4, 5, 6학년, 주말에는 중학생, 고등학생도 방문함 (송촌초, 조안초, 양서고 등) · 청소년을 자기 삶의 주인이자 공동체 시민으로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로 운영하며 일상에서의 경험을 중요시함. 화-일 저녁 8시까지(주말 9-6시) 운영하고, 방과후 아카데미는 월-금 하교 후 3시부터 활동을 시작해, 공부하고 저녁 먹으면 귀가하는 시스템임. 방학이면 오전 10시부터 와있는 경우가 많음. '방과후 아카데미', 지역축제 '만나장', 사회참여활동 '별의별 프로젝트', 진로탐색 프로그램 '직업과의 대화' 등 서울보다 누릴 수 있는 건 부족하지만 자연환경이라는 좋은 자원들을 지역 청소년이 누리고 좋다고 체감할 수 있을 기획을 모색하는 편.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도하고 탐색하며 성장할 프로그램을 고민함 · 양평서부 청소년에 관심 있는 이들이 모인 '양평서부교육네트워크'에서 각자 고민을 나누고 워크숍을 진행함. 학부모, 대안학교, 청소년휴카페 종사자, 방과후 아카데미, 환경교육센터 등 약 20개 기관, 단체가 소속되어 있음. 2023년(양서)부터 청소년축제를 진행해 2024년(서종), 2025년(옥천)에도 이어짐. 체험, 먹거리, 공연 파트 구성할 때 지역민과 함께 기획하고, 일회용품을 덜 사용하는 환경 문제를 주되게 고민하는 편. 이동권도 화두이나 정책 부분을 반영하는 데 시간이 걸려서 녹이지는 못함 · 최근에는 청소년이 체험 후 '재미있었다'로 끝나지 않고 풍부하게 얘기할 수 있도록 용문의 책방에서 책 모임을 진행하며 청소년의 읽고 쓰고 말하는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고민 중임. 토론 수업을 기반으로 철학 축제를 기획할 예정
<p style="text-align: center;">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p>	<p>■ 연결의 축이 되는 존재, 커뮤니티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커뮤니티 내에서 지역 공간 소개 및 연결, 기획이 자연스럽게 이뤄지도록 세팅이 필요함. 고민이나 하고 싶은 게 생기면 커뮤니티를 떠올릴 수 있도록 소통할 장을 펼치는 것. 네트워킹에서 구성원이 얻어갈 부분을 명확히 해야 유명무실하지 않을 것 <p>■ '만나장'의 기획의도는 지역 농부와 청소년이 만나 농사 체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통편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매일이 아닌 주 1회 방문으로는 1년 농사 과정을 이해할 수 없다는 농부와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음. 예술가, 농부와 교육을 묶어줄 구심점 역할을 실학박물관이 해주길 바람
<p style="text-align: center;">시사점, 아이템</p>	<p>■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내 교육 관련 커뮤니티의 필요성 · 예술가, 농부, 교육을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실학박물관에 요청

참여자		내용
정속 시우반디 도서관	지역의 아동 청소년 교육현황	<p>■ 도서관 담당자, 강사, 교통수단의 부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우리에 아이들을 봐줄 공간이나 놀 도서관이 없어서 공동체 사업을 통해 쓰지 않는 마을회관을 도서관으로 바꿈 · 남양주시 학습등대 지원사업을 받아서 진행하다 보니 강사 섭외의 어려움을 체감함. 마을 학부모, 재능 있는 분들을 섭외해 프로그램 (영어, 보드게임, 미술, 음악, 노래 등)을 구성하거나 양수리, 서종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올 수 있도록 개방하는 등 해결책을 강구함 · 초반에는 일과 병행하며 도서관을 운영하거나 자비로 운영비를 마련했으나, 현재는 마을 지원금, 면사무소 책 지원으로 운영함.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이 100명에서 최근 40명 수준, 타 지역 이용자에게 개방. 교통수단이 부족해 픽업이 필요한 실정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프로그램 대상의 다각화, 지역 공간 사용설명서 및 강사 정보 공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인/시니어가 지속적으로 새로운 걸 배우고 알고 싶은 욕구를 충족할 프로그램이 필요함. 정약용도서관, 외부도서관 프로그램은 이동이 쉽지 않음. 지역 공간 사용설명서, 강사 정보를 공유한다면 도서관도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
	시사점, 아이템	<p>■ 시우반디도서관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강사 섭외의 어려움, 강사 정보를 공유하여 도서관과 박물관이 시너지를 확대 · 교통수단의 지원을 요청

예술

- 주요 논제 : 지역 기반 예술활동의 현황과 해결 방안

참여자		내용
신은경 미술작가 '사회복지사	지역 기반 예술 활동 관련 현황	<p>■ 선주민-이주민-관광객 사이 교류 부족으로 사라지는 가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주민과 이주민, 관광객의 각기 다른 층이 존재하고 교류가 원활하지 않음. 선주민-이주민-관광객이 교류하며 보완할 지점을 골몰해야 함 · 조안면은 이 씨 집성촌임. 리마다 분위기나 상황이 다르고 이주민과 세대교체 되는 추세. 그러면서 마을이라는 공간의 이야기, 가치가 사라져가는 것이 아쉬움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선주민과 이주민, 세대 간 교류의 계기 마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대 이상인 선주민에게 기대하기보다 문화예술이 그 역할을 모색해야 함. 어느 정도의 소통 의지가 있는지 파악한 뒤에 특별하게 조명될 부분을 발견하며 작업이 시작될 것 · 마을 할머니들은 문화감수성, 문화지수가 다르지만 프로그램을 함께해 보면 만족도가 높음. 할머니들 이야기를 듣고 아이들이 그림 그리는 활동을 해보고 싶음 <p>■ 선주민의 지역 이야기 아카이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 지역 토박이인 집주인을 통해 정류장 명칭과 지역 이름의 유래를 알게 됨. '몽달은 그 앞에서 사람이 많이 죽어서 몽달귀신을 뜻하는 이름을 지었다거나, '부대 앞은 말이 많이 죽어서 붉은 이름이라거나. 지역 관련 흥미로운 이야기를 모아 아이들에게 전해주면 좋을 것
	시사점, 아이템	<p>■ 미술작가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주민과 이주민, 관광객의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있어 문화예술의 역할 필요 · 지역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는 문화 프로그램 제안 · 선주민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브하는 사전 작업 요청

참여자		내용
최은주 모퉁이 놀이터	지역 기반 예술 활동 관련 현황	<p>■ 지역, 마을의 가장 좋은 콘텐츠는 자연경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주민이든 여행객이든 모두 극찬하는 이곳만의 자연경관. 매달, 계절마다 방문할 정도로 인기 있음. 자연경관을 즐기기 위한 콘텐츠를 본격적으로 모색하면 좋겠음 · 최근에는 서울 외 지역으로 이주하는 이유가 다양해지는 추세임. 테니스 칠 곳이 많아서, 체육시설이 많아서, 반려견과 생활하기 좋아서 등 여러 측면에서 이주를 고려하는 이들이 지역에 융화될 수 있도록 지역의 장점을 발굴, 어필할 필요가 있음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청소년 창작자를 대우하는 태도와 실험의 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이 제작한 굿즈를 판매해 보며 기념, 호의로 구매해주는 것보다 경쟁력 있는 스토리로 봐주는 시선이 중요함을 깨달음. 청소년축제 외에 청소년의 다양한 시선, 다양한 시도를 내보일 지속적인 판이 필요함 <p>■ 지역 스토리텔링, 그림책과 보드게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라운드테이블에 나온 이야기, 창작자를 모아 그림책으로 제작하거나 남양주 트래블러 보드게임처럼 지역 자연환경을 담은 보드게임을 제작하면 좋겠음. 아동청소년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난이도와 설명으로 구성한다면 교육적 효과도 발생할 것
	시사점, 아이템	<p>■ 문화상점 운영자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주제로 한 그림책, 보드게임 등 지역자원을 다룬 굿즈 제작을 제안 · 청소년의 참여 및 교육을 위한 굿즈 제작 시 교육효과 발생 · 지역의 주요 자원인 자연환경을 강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바탕 축제 기획자, 도예가	지역 기반 예술 활동 관련 현황	<p>■ 예술가들의 실학 중심 공유공동 작업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은 자연환경과 교통편이 좋으므로 자연과 연결된 삶을 통해 삶이 곧 예술, 예술이 곧 삶인 생활을 유지함. 산책한 후 그림일기를 그리거나 일상에서 할 수 있는 작업을 이어옴. 계절 변화, 필요에 따라 작업 내용이 변화하는 편 · 실학이 현대 나타나는 모습이 '퍼머컬처'라고 생각함. 둘의 관계성에 천착해 최근 휴작업을 진행 중 <p>■ 선주민-이주민-관광객을 모두 포용하는 공간의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을 중심으로 만나는 사람은 선주민, 이주민, 관광객으로 분류함. 선주민은 소속감으로 갈 수 있는 마을, 지역 내 공간이 많은 반면, 이주민은 인연도 없고 불편해서 갈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함. 또 관광객은 지역보다는 상업공간을 소비하는 방식으로 오감. 실학박물관이 이 모두를 포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길 바람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실학의 가치를 담은 유물, 일상품을 생활 속으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박물관의 전시 유물(천상열차분야지도)과 연결한 프로그램을 기획해서 지도와 현재 관측되는 별자리의 차이를 알아보고, 나아가 별을 관측하는 내용으로 구성해 보는 것 · 양평 예술가들과의 체험 프로그램으로 일상적인 물품을 직접 제작한 후 집으로 가져가서 사용하게 함으로써 실학의 가치를 실천으로 옮김 · 지역주민의 이야기를 듣는 '공유화' 형식의 프로그램으로 관광객이 지역, 지역주민과 지속적으로 연결되는 장을 마련함 <p>■ 지역 사이를 잇는 셔틀버스 운행</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근성을 위해서는 팔당역, 양수리까지 한시적으로나마 셔틀버스를 운행하면 좋겠음
	시사점, 아이템	<p>■ 축제기획자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의 가치를 살린 연계 프로그램 제안 (천상열차분야지도, 지역주민 이야기 공유화) · 양평 지역 예술가들과 일상적인 물건을 만들고 실사용하게 하며 실학의 가치를 실천에 옮김 · 셔틀버스 운영 등의 교통 문제 해소 제안

참여자	내용
<p>지역 기반 예술 활동 관련 현황</p>	<p>■ 지역 예술 활동에서 빈번한 지역주민 대상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기문화재단과 하는 사업은 지역 예술가와 결합해 지역 공간에서 진행해야 함. 문제는 거주하는 주민이 대상화되면서 재미, 애정, 성취를 느끼지 못함. 예술과 결합해 주민을 참여케 하고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목적이어야 함 용진정미소 마을 기록의 첫 주인공은 당시 가장 힘 있고 활동적이며 단체로 움직이는 할머니들임. 살아계시는 동안 기록하기 시작함. 몇 년 사이 할머니들의 기력이 떨어지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생김. 다른 주인공을 발굴해야 하는 상황 송촌리는 애초 생업이 농업 기반임. 할머니 다음 주인공은 농업의 역사를 함께 얘기할 수 있는 유기농부라고 봄 <p>■ 지역과 관광객의 연결고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관광객의 동선은 마음정원에서 멈추는 경우가 대다수. 물의정원 즈음에 있는 지역문화예술단체나 여러 장소들이 연결되기 힘들. 마을 이야기가 담긴 오래된 터, 별서터나 빨래터가 이들에게 의미를 갖지 못함. 마을을 향하게 할 방안이 필요한 시점임 마을지도 제작도 그 일환인데 실학박물관 차원에서 관광객이 마을과 연결되게 할 부분을 함께 모색해주면 좋겠음
<p>김양현 용진정미소 기획자</p> <p>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p>	<p>■ 정기 네트워킹으로 고민 나누는 구조 지속</p> <p>■ 지역 내 공간을 스토리텔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곳곳에 있는 '터'나 지명에 관한 이야기 등을 남기면 이주민이 마을에 문화적 친밀감을 느낄 수 있고 정착할 때 훨씬 도움될 것. 자연스럽게 관광객도 지역을 흥미롭게 바라볼 계기가 마련됨 시대별 땅의 모습이 기록된 지도로 변화상을 찾고, 마을주민들이 부르는 지역 명칭들을 수집해서 이야기로 남기는 방법이 있음. 별서터, 박소재 등 문헌상 남아 있는 장소 유래를 먼저 아카이브하고 스토리텔링하면 됨 송촌리 빨래터(겨울에도 물이 얼지 않았는데 세월이 흐르며 이용하지 않던 곳. 2024년에 복원사업을 시작함), 물의정원/마음정원 (원래는 농사짓던 곳. 4대강 사업으로 수몰됨), 송촌리 건넌마을의 위치 (원래 마을은 더 아래에 위치했는데, 을축년 대홍수 때 마을이 잠기면서 더 위로 터를 옮겨 새로 집을 지음), 용진교회 (물의정원 부근에 살던 부잣집 마나님의 몸이 편치 않아 나올 방법을 찾았더니 누가 교회를 세우라고 했다고 전해짐), 술도가 ('죽여주는 동치미' 바로 앞에 있는 정류소 자리) 경기문화재단 '지붕 없는 박물관' 사업처럼 실학박물관 밖으로 나가 마을 곳곳에서 정약용 선생의 흔적을 찾고 기록해보는 것도 좋을 것
<p>시사점, 아이템</p>	<p>■ 문화기획자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을의 지명, 땅의 모습 등을 아카이브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제안 에코뮤지엄처럼 실학박물관 밖 곳곳에 정약용 선생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을 제안 관광객의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을 관광 코스 및 지도, 콘텐츠 제작을 제안

참여자	내용
<p>지역 기반 예술 활동 관련 현황</p> <p>이효주 삼치와</p>	<p>■ 이주민으로서 선주민과 어울릴 여러 방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린 시절 경험한 동네를 통해 선주민과 이주민의 간극은 쉬이 좁혀지는 게 아님을 인지함. 그럼에도 동네 할아버지에게 옛 이야기를 듣는다거나 길 가다 만나서 인사할 때 반기는 태도, 옆집 할아버지가 커피 한 잔 타주는 등의 행동은 서울에서 경험하기 힘든 호의이고 즐거운 경험임 · 2024년 집주인 아저씨의 권유로 우연히 참여한 반상회에서 '이주민들이 많은데 같이 뭔가를 해보자는 마음이 모이기 시작함. 월 1회 생일파티를 빌미로 1년간 꾸준히 만났고, 밴드이다 보니 노래도 부르고 사진도 찍고 음반 프로모션을 진행하기도 함. 호응이나 집중도가 좋진 않았지만 그마저도 즐거운 경험으로 남음 · 2024년 마을 축제 때 '골목사업가' 같은 사업을 연결해준 것도 마을 할아버지들임. 친근한 이주민과 무언가를 해보고 싶은데 마을 운영비로는 힘들고 사업을 어떻게 따와야 할지 모른다고 느낌. 사물놀이만 해도 부녀회와 십시일반 자비를 모아 진행한 거로 알고 있음. 결합하기 난처한데 방법을 찾지 못하는 중 <p>■ 예술가에게 마을은 영감의 원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진정미소' 같은 마을 공간은 그 자체로 영감이 됨. 촬영 장소 또는 이 장소를 소재로 곡을 만드는 등 여러 아이디어가 솟아남. 마을 할머니들의 삶을 접하면 콘텐츠를 제작하는 발판이 되므로 네트워크나 경험할 장소, 접점만으로도 충분함 · 마을 자랑거리이자 자부심은 한음 선생이 머물던 별서터,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는 한옥집, 박소재, 물의정원
<p>이끼리</p> <p>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p>	<p>■ 창작의 영감이 지역에 무궁무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브이로그 : 일상을 자연스럽게 보여주고 꾸준히 남기는 성격임. '시골 할아버지랑 노는 밥'이나 '우리동네 자랑', '진짜 가재를 볼 수 있는 계곡' 등 지역 곳곳에 콘텐츠가 널려있음 · 지역축제 : 한음골이라는 이름이 메리트 있음. '오성과 한음'을 중심으로 한 축제 기획 · 영화제 : 지금은 공터가 된 야외공연장을 활용해 산골영화제나 어린이독립영화제 등을 기획해서 상영 · 포크페스티벌 : 양평 시장이나 물의정원, 공터가 된 야외공연장 등 지역 내 장소들을 활용해 어쿠스틱 뮤지션, 싱잉볼 명상 등 최소한의 구성으로 공연할 수 있도록 기획. 뮤지션들에게 피아노, 멜로디언, 실로폰 등 챌린지 형태로 악기 구성을 달리 시도해 보도록 권유하는 방법도 재미있을 것 · 영감은 마을에 있더라도 실제 창작활동과 결과물을 드러낼 장을 기획하려면 비용이 필수적임
<p>시사점, 아이템</p>	<p>■ 인디뮤지션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삶을 보여 줄 수 있는 브이로그 프로그램 제안 · 지역축제, 영화제, 포크페스티벌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잔치 진행 ·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요청

참여자	내용
지역 기반 예술 활동 관련 현황	<p>■ 아직 드러나지 않은 양평 예술가의 존재와 잠재력 발굴</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에는 예술가가 많고 잠재력도 충분하지만 재단이나 기관에서 활용 못 한다고 느낌. 2024년 '정담회'에서 예술가를 직접 찾아가 보니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예술가들이 하나둘 드러남. 10여 년간 양평 지역을 주제로 작업하는 작가임에도 지역에서 한번도 조명하지 않았던 점을 아쉽게. 지금까지의 작업을 공유해달라고 했더니 200p가 넘는 분량의 PPT를 준비할 정도로 대단했음 • 예술인은 판, 기회가 있어야 밖으로 나오고, 그럼에도 발견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음. 재단이 예산이나 사업이라는 틀에 갇혀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네트워킹, 전시와 별개로 작가들의 성향과 그들의 삶을 들여다보고 싶어졌음 • 장점이자 단점은 양평은 행정구역상 수도권이라 예술인으로서 혜택이 다소 제한됨
<p>전유정</p> <p>양평문화재단</p> <p>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p>	<p>■ 양평 예술가의 확장, 셀링포인트 발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 예술가는 다른 지역과 달리 생활하는 지역에 따라 작업 형태가 변화하거나 삶의 형태가 변화된다는 공통점이 있음. • 동시에 외로움, 소외감을 크게 느끼는 편. 삶과 예술이 붙어있기에 발견되는 지점임. 같은 지역, 장르와 대화하기보다 아예 다른 이들과 대화하는 걸 편하게 여기는 편. • 미술관은 이제 작품만 전시하는 공간이 아니라 굿즈 등 다방면으로 예술가의 셀링포인트를 만들어가는 추세임. 두 가지 모습이 한계가 아닌 확장의 여지가 될 수 있다고 봄 • 다만 예술공간들은 차가 없으면 방문하기 어려운 현실임. 실학박물관만 해도 역에서 도보로 올 수 있다고 여기지만 칼바람 등을 마주하면 이동이 쉽지 않은 점을 유념할 것
시사점, 아이템	<p>■ 양평문화재단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의 예술가들에게 집중한 아카이빙, 네트워킹의 필요성 • 예술가들의 셀링포인트를 확인, 박물관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

■ **농사**

- 주요 논제 : 지역의 농업 및 먹거리의 현황 및 해결 방안

참여자		내용
이 연 주	지역의 농업 및 먹거리 현황	<p>■ 만족도 높은 지역 농산물 식사 경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머리부역은 지역 농산물을 관광객에게 소개하고, 지역과 상생하는 방향의 영업 이의 창출을 목표로 함. 3-4년간 재료비, 인건비, 관광객/지역주민 비율 데이터를 쌓아 흑자 전환 구조를 확립함. 양수리는 관광객이 다수로 극성수기(4-5월, 9-11월)에 지역 농산물을 이용해 식사하는 것의 만족도가 높음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실학 관련 지원이나 경험 중심 프로그램 구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수리 상인연합회의 상인 지원이 있다고 들었으나 작은 가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전무. 오히려 실학박물관이 그 부분을 같이 고민해준다면 좋을 것 '텔레떼', '다람쥐', '두머리부역'에 방문해 농사 체험, 먹거리 경험 등 실학과 결부해 색깔이 다른 프로그램을 기획하면 알아갈 계기를 마련하고 시너지를 예상함
	시사점, 아이템	<p>■ 로컬식당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상권, 실학의 가치와 연계하는 방안 제안
최 요 왕	지역의 농업 및 먹거리 현황	<p>■ (유기)농업, 생협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유기농업의 역사는 생협 역사와 비슷한 과거 팔당생명살림유기농영농조합이 연 매출 40-60억 규모였으나 현재는 가파르게 추락 중. 현재는 관계마저 희미해지는 데서 고민이 생김 • 최근 농부의 살길은 공공급식 납품이라 생산력 및 마음이 치우칠 수밖에 없음. 그러면서도 영농조합을 살릴 방법을 모색하고 지역 농지가 제대로 보존될 방법을 강구하나 혼자서는 역부족임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실학박물관은 장터 개최보다 플랫폼 역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플랫폼은 물리적 공간, 이벤트 이상으로 교류와 소통, 판을 까는 역할임. 지역에 이런 역할을 맡을 주체가 부재하므로 실학박물관이 장터를 개최하기보다 플랫폼 역할을 하길 바람. • 장터는 서로에게 소모적이므로 잠재력이 있는 아이템, 적절한 규모, 시점의 사업을 골몰하면 좋겠음. 지역 기반이 탄탄해야 각자의 자리에서 같이 할 수 있는 것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
	시사점, 아이템	<p>■ 농부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실학박물관에 제안

참여자	내용
지역의 농업 및 먹거리 현황	<p>■ 농사로 생계유지하기 힘든 구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물머리농민회, 가톨릭농민회, 두물머리분회 소속 농부, 작물로 음식 만드는 가게 '다람쥐' 직원으로 일함. 2024년 의미 있는 일이고 시장의 변화를 감지해서 농사에 몰두했으나 수익이 기대에 못 미침. 2025년에는 농사를 줄이고 가게 일 비중을 높이기로 결심함 • 농사를 혼자 짓고, 농자재나 기계를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겨우 생계가 유지되는 구조임 • 여럿이 같이할수록 손해를 보니 농부가 고립되거나 농사를 포기하거나 둘 중 하나 • 유기농업에 관심이 커서 지역 내에서 얻을 수 있는 부산물로 거름을 제작하거나 여럿이 농사를 짓는 방향을 집요하게 모색하게 됨. 마찬가지로 수익이 보장되지 않아서 방법을 모색할 시간과 응원받는 다른 방식을 찾아야 함
조호연 농부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장기적인 관점에서 작은 실험, 연구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다수가 모르는 실학이나 제철 식재료의 매력을 전달할 아이디어가 필요한 시점임. 예를 들어 최요왕은 12년 전부터 동네 주민에게 똥오줌을 받으면 딸기와 교환하는 프로그램을 해볼 생각이었음. 새로운 전환이 될 만한 실험을 자주 시도해보아야 함. • 1년간 라운드테이블이 진행되어 아이디어를 차곡차곡 굴러보거나, 각자 부담 없이 작고 많이 실험해 볼 실험비와 환경 지원이 마련되면 좋겠음. 이 자리를 계기로 자체 모임을 구성해 성공사례를 분석하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은 실천해보도 좋을 것 • 기존 공동체 예산이 있으나 공동체와 교감할 수 없는 성격의 지원이 걸림돌임. 지원을 받지 않고 활성화되지도 않음. 생활에서 시작된 실학적인 아이디어를 싹 틔울 지원이 간절함. 기획과 필요에 따라 금액에 차등을 두되, 신뢰를 바탕으로 정산 과정이 까다롭지 않으면 함 <p>■ 먹는 경험, 공간의 연결, 농사 이야기 전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머리부엌에서는 지역 농산물을 요리해 먹고 '두머리상화'를 통해 식재료를 판매함. 여기 착안해 공간적인 아이디어를 모으면 좋겠음. '지역사용설명서'를 잘 만들면 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함. 동네 농부 어르신들의 옛 농사, 토종 종자 이야기를 인터뷰로 수집하면 좋겠음
시사점, 아이템	<p>■ 농부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 제안 • 기존의 예산 지원 체계를 검토해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걸 제안 • 먹거리에 대한 종자, 농사법 등을 지역사용설명서로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

참여자	내용
지역의 농업 및 먹거리 현황	<p>■ 농부를 위한 농부시장의 부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에는 오전 10시-오후 3시까지 운영하지만, 농부들이 시간 내기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 2024년부터는 월 2회(평일 1회, 주말 1회), 양평생활문화센터 앞마당에서 오전 10시-11시까지 1시간만 여는 농부시장을 실험 중. 관광지(두물머리)를 고려한 주말 시장 1회, 주민들을 위한 평일 시장 1회. 담고 싶은 가치는 많으나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해서 많이 팔려고 노력함. 농부 장터임에도 농부가 들러리 되는 경우가 부지기수 <p>■ 요리사는 가치소비를, 소비자는 일상소비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리사는 비용 중심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음. 저렴한 식재료보다 농부와 상생하는 방향의 모색과 인식 전환이 필요함 · 소비자는 자발적으로 가치 있는 농산물을 사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농부시장이 존재해도 무의미함. 일상적으로 못난이 농산물을 소비하는 층이 있으니 지속적으로 이어갈 방향을 모색해야 함
박도희 두물머리농부시장 현황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	<p>■ 농부를 위한 농부시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식재료 대비 가공식품의 가격대가 높음. 농부를 위한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함. 단순히 접근하면 농부시장과 직거래장터, 아트마켓의 구분 없이 허울뿐인 장터를 열게 됨. 농산물이 팔릴 직접적인 활동, 고민이 수반되어야 농부와 지속적으로 협업할 수 있음 · 농부시장의 존재 이유는 명확하지만 참여하는 농부에게 미안한 마음이 생기면 다음을 기약하지 못함. 모두가 열심히 해도 허탈해지는 결과를 낳음. 꼭 많이 파는 게 목적인 아니라 해도 자본주의 시대에 소비자를 감동시킬 방법을 아직은 찾지 못함. 할인, 1+1, 덤 등 여러 방법을 써봐도 농부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기엔 역부족. 가치를 알아보는 소비자가 농산물을 감사한 마음으로 맛있게 먹어주는 일, 그 에너지를 동력으로 건강하게 순환하고 즐겁게 잘사는 일까지 나아가는 폭넓은 시야 필요한 상황. 이벤트성으로 소모하는 방향이 아니라 실학 정신을 삶에 녹이는 동시에 유기적 운영이 가능한 기획을 기다림 <p>■ 일상의 좋은 기억, 추억이 될 한 곳</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녀가 겨울캠프를 기억하고 기대하는 건 마시멜로우. 기획의 포인트가 마시멜로우는 아니지만 어른이 되면 마시멜로우가 추억의 음식이 될 것. 실학박물관에서의 이벤트가 일상 속 좋은 기억이 되고 차차 변화를 심어주는 방향이길 바람. 그 다음에 조금 더 알고 먹는 과정, 그 가치와 정신, 이야기를 전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함 · 먹어보고 맛있다는 경험을 주지 못하면 영영 모르는 판일 것. 채식, 유기농 좋다고 떠들기보다 경험 중심의 작은 실험이 중요함. 선입견을 지우고 맛 때문에 손이 절로 가는 '알고 보니 OO' 같은 획기적인 게 필요. 리서치를 통해 우리와 가장 비슷한 아이템, 걸모습에 변주를 주어 같은 내용을 담는 접근 등
시사점, 아이템	<p>■ 농부시장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부시장에서 농부의 수입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신중한 접근이 필요 · 음식의 원재료를 사는 것이 어색한 시대, 다양한 체험 등으로 좋은 먹거리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참여자	내용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김지윤 델레떼</p>	<p>■ 시장을 파악한 제철 로컬푸드의 대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좋은 먹거리를 대중화할 새로운 방식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좋아할 만한 아이템 모색이 필요함. 구구절절 설명하거나 교육 없이, 두물머리 핫도그 먹듯 델레떼 아이스크림을 한 번 먹어본 경험이 다음을 만드는 구조를 만들면 됨. 먹어본 경험을 발판으로 식재료의 이야기, 양평이라는 지역과 사람의 이야기를 알리는 역할을 함 • 제철 식재료(원물)보다 가공식품을 더 많이 소비하는 세대. 장터를 열어도 판매자와 소비자 모두 실망하는 상황이 벌어질 것. 소비 양상을 고려한다면 시금치 판매보다 시금치 페스토 판매가 효과적임. 오히려 농부와 소비자 사이에 가공할 사람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지역성을 담은 스토리텔링이 필요. 농부의 이야기를 담으면 가치가 생기며 더 맛있게 느껴짐. 관광객 입장에서 밥집, 카페 등을 연결한 코스 안내를 마련해도 좋을 것
	<p>■ 소비자 설문조사로 데이터 축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 가게에서는 연 1만 명을 만나기 어려우니 실학박물관에서 먹거리 패턴, 추억의 음식 등 연령대별 데이터 수집 후 이듬해 그걸 기반으로 프로그램을 기획해보는 것. 햄버거를 좋아하는 아이에게 나쁘다고 말하기보다 햄버거에 변주를 주는 방식으로 우리 밀 빵, 고기보다 표고버섯, 상추와 토마토는 양평 농산물 등으로 구성해 좋은 기억을 제공함. 동시에 기존 햄버거를 구성하는 고기와 상추가 어디서, 누구를 통해 만들어지는지 알아가는 교육을 병행함
	<p>■ 로컬푸드 카페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실학박물관에서 먹거리에 패턴, 선호도 등을 수집하여 그에 기반한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
<p style="writing-mode: vertical-rl; text-orientation: upright;">변민지 팔당두레생협</p>	<p>■ 식생활 교육 프로그램, 쉽고 간편한 메뉴 소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강한 먹거리는 몸의 건강뿐 아니라 지역, 생산자와 지구 건강을 생각한 먹거리라는 교육이 필요함. 동시에 식재료를 쉽고 간편하게, 그러면서도 다양하게 먹을 방법을 고안하는 게 중요함. 이 과정에서 지역 농부들을 알리는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p>■ 실천 위한 인식 변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박물관에 방문하는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역의 건강한 먹거리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는 프로그램이 필요함. 교육 대상을 아동청소년, 청년, 중년, 노년 등으로 세분화하고, 먹거리를 식재료로 소비하는 방향과 가공해서 소비하는 방향, 체험으로 소비하는 방향 등으로 나눠서 기획해볼 것
	<p>■ 팔당두레생협의 고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박물관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소비 교육을 제안

9. 라운드테이블 종합의견

■ 라운드테이블 공통 의견

- 지역의 교통환경을 고려한 교통지원
- 지역성, 생태환경에 집중한 지역 아카이빙 및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지역 활동주체들의 네트워크 구축, 플랫폼의 역할

■ 라운드테이블 분야별 세부 의견

주제	도출 내용
교육	<p>■ 문화예술교육, 인문학 강사의 양성 및 발굴 체계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주민이 문화예술교육의 강사가 될 수 있도록 교육, 네트워킹의 필요 • 문화예술교육자의 필요성 증대, 재단은 사업 운영보다 발굴, 네트워킹의 필요성 절감 • 실학 정신을 학습한 예술가들을 지역의 문화예술교사로 양성하는 과정을 요청 • 강사 섭외의 어려움, 강사 정보를 공유하여 도서관과 박물관이 시너지효과를 확대
	<p>■ 청소년, 학생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진행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을 위한 실학, 인문학 클래스를 진행하는 것을 요청 • 교과과정과 연계한 실학박물관의 원데이클래스 수업
	<p>■ 야외 놀이공간 조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놀이터 같은 야외 놀이공간의 구심점이 필요 • 모험놀이터 같이 아동청소년의 자율성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실학박물관 정원에 조성
	<p>■ 교육 관련 커뮤니티, 실학박물관의 구심점 역할 요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관련 자원, 인력, 프로그램 등을 공유할 커뮤니티 필요 • 지역 내 교육 관련 커뮤니티의 필요성 • 예술가, 농부, 교육을 묶어 줄 수 있는 구심점의 역할을 실학박물관에 요청 • 아동, 지역의 수요조사를 통해 매칭하고 사업을 운영할 기획 단위를 구성
	<p>■ 열악한 대중교통에 대응할 수 있는 교통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권이 취약한 환경을 고려해 교통지원 (버스 등)

주제	도출 내용
예술	<p>■ 문화예술을 통한 소통구조 구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주민과 이주민, 관광객의 소통하고 교류하는 데 문화예술의 역할 필요 · 관광객의 동선을 연결할 수 있는 마을 관광 코스 및 지도, 콘텐츠 제작을 제안
	<p>■ 지역의 문화자원 아카이빙</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주요 자원인 자연환경을 강조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 양평의 예술가들에게 집중한 아카이빙, 네트워킹의 필요성 · 마을의 지명, 땅의 모습 등을 아카이빙하여, 스토리텔링을 통해 공유하는 것을 제안 · 선주민들의 이야기를 아카이빙하는 사전 작업 요청
	<p>■ 실학의 가치를 대중화하는 문화프로그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의 가치를 살린 연계 프로그램 제안 (천상열차분야지도, 지역주민 이야기 공유회) · 에코뮤지엄처럼 실학박물관 밖의 곳곳의 정약용 선생의 흔적을 기록하는 것을 제안
	<p>■ 지역 특화 프로그램 개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삶을 보여 줄 수 있는 브이로그 프로그램 제안 · 지역축제, 영화제, 포크페스티벌 등 지역의 다양한 공간을 활용해서 마을잔치 진행 · 지역을 주제로 한 그림책, 보드게임 등 지역자원을 다룬 굿즈 제작을 제안 · 청소년의 참여 및 교육을 위한 굿즈 제작 시 교육효과 발생 · 양평 지역 예술가들과 일상적인 물건을 만들고 실제로 사용하여 실학의 가치를 실천에 옮김 · 지역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발굴하여 아이들이 그림을 그려보는 문화 프로그램 제안
	<p>■ 지원 체계 및 지속화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다양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는 예산 지원을 요청 · 예술가들의 셀링포인트를 확인, 박물관의 다양한 사업과 연계 · 셔틀버스 운영 등의 교통 문제 해소 제안
농사	<p>■ 먹거리, 식문화, 농사 체험 교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먹거리 체험 등의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지역상권, 실학의 가치와 연계하는 방안 제안 · 먹거리에 대한 종자, 농사법 등을 지역사용설명서로 제작하는 방안을 제안 · 실학박물관에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먹거리 소비 교육을 제안 · 음식의 원재료를 사는 것이 어색한 시대, 다양한 체험 등으로 좋은 먹거리의 필요성을 설득할 수 있는 매력적인 프로그램이 필요
	<p>■ 다양한 실험의 지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새로운 실험을 진행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논의하는 자리 제안 · 농부를 위한 플랫폼 역할을 실학박물관에 제안
	<p>■ 맞춤형 지원 체계 수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의 예산 지원 체계를 검토해서 지역에 맞춤형 지원을 설계하는 걸 제안
	<p>■ 농산물 판매의 확대 방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부시장에서 농부의 수입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가 다수, 신중한 접근이 필요 · 관광객이 많이 찾는 실학박물관에서 먹거리에 패턴, 선호도 등을 수집하여 그에 기반한 프로그램 기획을 제안

라운드테이블 종합분석

- 지역 교육자원의 부족을 네트워크와 자체적인 활동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자조적 활동 확인
 - 강사 발굴, 네트워킹, 강사 육성에 대한 제안
 - 아동,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에 대한 제안
 - 지역에 부족한 야외 놀이공간, 교통지원을 통한 교육 환경 개선
 - 교육 관련 네트워크를 통해 지역 교육에 대한 거버넌스 구조 구축
- 예술영역에서는 지역 문화자원의 아카이빙 및 프로그램 개발, 이를 지원할 지원 체계를 제안
 - 지역의 자연, 인물, 예술가의 작업 등의 문화자원을 아카이빙
 - 지역주민 간 소통방식에 문화예술 활동 적극 반영
 - 지역에 맞춤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개발
 - 실학을 주제로 한 문화예술교육 활동 개발
 -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 체계 개발
- 농사영역에서는 식문화 교육 및 농업의 확대를 위한 실험을 지원하는 체계 구축을 제안
 - 바뀌는 식생활에 대응할 수 있는 식문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 농업 영역의 다양한 실험 지원,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 농산물 판매 확대를 위한 데이터 축적, 관광객과의 연결 역할을 하는 플랫폼 역할 요청



10. 시범사업

■ 기획의도 및 배경

-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지역의 새로운 실험과 지원 체계에 대한 욕구를 확인
- 지역 안에서 새로운 실험을 하는 주체들을 발굴하고 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젝트 기획
- 해당 프로젝트 진행 이전에 지역 주체들의 의견을 수렴 지역에 걸맞은 지원 체계 수립
- 지역의 다양한 아이디어를 나누는 과정에서 사전 수요조사를 겸하며 각 팀의 네트워킹을 통해 통합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지원
- 향후 프로젝트 진행 과정을 안내하여 사전 홍보를 진행

■ 시범사업 : 실·실·실 프로젝트 상상모임

- 시범사업 개요
 - 추진대상 : 실학박물관 인근 지역(남양주시 조안면, 양평 양서면) 주민 및 활동가 30명
 - 추진일시 : 2025년 3월 12일(수) 14:00-16:30
 - 추진장소 : 양평청년공간 탄탄회관(양서면 두물머리길 20번길 8)
 - 참여대상 : 지역주민, 활동가, 예술가, 농업종사자, 기획자, 활동가, 유관기관 종사자 30명
 - 추진내용 : 2025년 운영 예정인 실·실·실 프로젝트 지원사업 의견 수렴 (설계 워크숍)

시간	일정
14:00-14:15	여는 말 : <실·실·실 프로젝트> 소개
14:15-15:30	실·실·실 상상하기 : 작은 실험 상상하며 대화 나누기
15:30-16:00	지원사업 상상하기 : 지원사업 운영 방식 상상해 보기
16:00-16:30	자유 모임 : 자유로운 교류와 대화



11. 시범사업 도출 의견

I. 먹거리의 힘

- 진행 강보영
- 참여 박도희, 최예슬, 김지윤, 강춘희, 이연주, 이양희, 조호연, 이종진 (8인)

참여자	실험
박도희 두물물 농부시장과 레코우리 농부시장 운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부시장에 화장실이 없는 문제를 지역 농업 퇴비와 연계한 생태화장실 설치 아이디어를 구상 중 • 농부시장이 로컬에 기여하고 순환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유 공간을 운영하고 싶지만 여력이 없음 • 두물물 농부시장에도 셀러가 운영팀의 결정사항을 통보받는 대상이 아니라 함께 의견을 내고 결정을 논의할 수 있는 단위가 필요
최예슬 조안에서 청년들과 아이들과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의 특성과 생태적인 것들, 오늘 이야기된 다양한 활동들 같은 것들이 지역의 아이들과 청년들에게 연결되었으면. 그런 프로그램 있다면 참여하고 싶고 이런 것들을 나누고 만들어나가는 모임의 장을 함께 만들고 참여하고 싶음
김지윤 양수리에서 수제 젤라또 만들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델레떼는 양수역과 세미원 사이에 있고 주말에 타지 손님이 대부분. 양평에서 뭐 할지 뭐 먹을지 궁금해하는 손님들 많음. 지역 로컬 맵이 필요함. 농부시장과 농장체험을 연계하는 등 양평의 색깔을 더 기억할 수 있게. 하루 코스가 될 수 있는 '밥+간식+디저트+체험+선물'까지 포함된 코스 구성 필요
강춘희 팀화요	-
이연주 두머리부엌 현 운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머리부엌에서는 로컬 재료를 쓰고 생산자를 소개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메뉴에 계속해서 산지, 생산자, 스토리를 담고 싶음 • 그날 식재료로 사용된 농산물을 판매하거나 지역 생산자의 가공품(빵, 장아찌 등)을 판매하는 상회 코너도 공간이나 인력의 인건비 구성에 어려움이 있다. • 벽면 활용해서 기본적으로 자주 쓰는 생산자의 스토리와 정보를 전시(지도 모양으로 생산지 위치를 표시, QR코드 활용)
이양희 팔당두레생협 이사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조안올레투어'라는 4년차 (한국관광공사) 관광두레 지원사업에서 파일럿 상품 시작할 예정. 500만 원 예산에 6-8시간 투어 프로그램. 소비 중심이 아닌 생태 중심, 자연의 섭리를 느끼고 먹거리부터 탄소발자국까지 고민하는 여행을 만들고 싶음
조호연 가톨릭농민회 두물머리 분회 농부, 식료품점 다람쥐 직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퇴비클럽 운영해보고 싶음. 실제로 마르쉐에서 농가와 소비자를 서로 연결해 음식이나 식재료 부산물을 교환하는 퇴비클럽이 운영되고 있음. 지역 내에서 순환시키는 구조로 하면 더 좋을 것 같음. 근거리, 동네, 이동에너지 최소화시키며, 로컬에너지로 로컬에서 순환시킬 수 있는, 사람들 사이에 관계를 맺어가고 싶음
이종진 국수리 로스터리 카페 운영	-

■ 노는 것의 힘

- 진행 신은경
- 참여 김양현, 이진성, 전유정, 박정임, 최은주, 박종문, 홍정아 (7인)

참여자		실험
김양현 용진정미소 기획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진정미소 굿즈 개발 계획 중 • ‘청춘극장’이라는 이름으로 할머니들을 위해 옛날 영화를 상영하는 것 • 할머니들을 요리 강사로 초대해 음식 만드는 활동을 해보려 함 • 내년에는 할머니들의 이야기를 가지고 영화 만들기 계획 중
이진성 조안올래투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안면(물의 정원, 딸기 농장) 투어 상품과 체험 상품 개발 중 • 회사가 3년 되었지만 아직 제대로 된 투어 상품은 없음. 먹거리나 쉴 수 있는 피크닉 세트를 제공하는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음
전유정 양평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평작은미술관, 지역 연계 플리마켓, 아이들 체험 사업 계획 중 • 이를 남양주, 양평 예술가와 협업하고 싶음
박정임 능내책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능내책방에 고전문학을 읽는 모임, 두꺼운 책을 읽는 모임, 그림책 읽는 모임 2개 총 4개의 책 동아리를 운영 중 • 일본 책 번역가로 활동하고 있음. 아이들을 대상으로 창작 활동을 한다면 선별하지 않고 아이들의 짧은 글을 모두 모아서 만드는 초 단편 문학상을 해보고 싶음
최은주 모퉁이놀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글 쓰는 프로그램을 하고 싶음
박종문 실학박물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학박물관 뮤지엄숍 제품 개발을 하고 싶음
홍정아 무빙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몸으로 이완하고 자신을 발견하는 활동을 하고 있음. 개인적으로 하고 싶은 실험은 없으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듣고 싶어서 참여. 지역과 만나서 자신의 재능을 펼치고 싶은 마음이 있음
협업	김양현, 최은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용진정미소 굿즈 개발
	김양현, 이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촌리 투어 프로그램 개발

I 먹는 것의 힘

- 진행 라정민
- 참여 이광호, 배경민, 정민규, 문나래, 천은선, 이해영, 윤미경, 정미숙, 전명순, 최은정 (10인)

참여자		실험
	이광호 없이있는마을, 목회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모삼촌이 아이들의 교육을 지원하고 함께 고민하는 공동체 • 아이들이 직접 퇴비를 만들고 식물을 기르고 기른 것을 먹어보는 순환 체계를 느껴볼 수 있는 활동의 필요성을 느낌 • 아이들을 위한 모험놀이터 같이 마음껏 놀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음
	배경민 양평문화재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동네 알기 교육과정을 운영한 적이 있음. 아이들이 지역에 관심 갖는 계기를 만드는 사업에 관심이 많음
	정민규 퍼실리테이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퍼실리테이터로 활동 중이라 서로 만나고 대화하며 관계의 토대를 만들어 나가는 활동을 하고자 함
	문나래 송촌초등학교 교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촌초등학교에서 맞춤형 생태교육, 먹거리 이슈(유기농, 동물복지) 등을 고민 중 꼬마 실학자라는 콘셉트로 지역의 생태와 먹거리를 고민하고자 함
	천은선 양평서부청소년문화의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맡겨놓은 카페(청소년을 위해 지역주민들이 결제) 사업을 고민 중 • 청소년들을 환대해주는 곳이 늘었으면 하는 마음 • 기존의 생태체험을 넘어 삶의 기술, 생활 영역의 교육을 위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을 고민 중
	이해영 청소년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년과 지역주체를 만나게 하여 지역의 의미 있는 타자/미래주체를 만들어 주고 싶음
	윤미경 청소년 활동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민과학자, 학습공동체 등의 활동을 통해 환경을 관찰하고 학습하고 실천해 볼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고민 중
	정미숙 양평종합복지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로운 사람이 많으면 함께 대화하는 독일의 수도 의자처럼 일상적이고 소소한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함
	전명순 문화해설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목원을 찾은 아빠들을 잠시라도 쉬게 할 수 있는 아빠 의자를 제안 • 자연을 보고 기록으로 남기는 활동을 제안
	최은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옛 물건을 기억하는 활동을 기획해보고자 함 • 숲과 생태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록하고자 함
협업	송촌초등학교, 두레생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촌초의 먹거리, 생태 교육에 대한 고민에 두레생협과의 협업을 없이있는마을의 이광호 목사가 추천

■ 지원사업 설계에 의견 제안

- 지원사업의 설계에 대한 의견 및 상상

구분	내용
지원주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나와 이웃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작은 실험 • 양수리, 조안 지역의 농부님들을 소개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으면 함 먹거리와 땅을 지키는 일이 제일 힘든 일이라 여기에 관심을 두면 좋겠음 • 현재 대표 먹거리는 없지만 이 지역의 큰 장점일 수 있어 로컬푸드를 강조 • 지역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길 바람
신청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함께하고 싶은 사람, 기관, 단체 / 실천하고 싶은 공간을 신청 시 명기해 서로 연결할 수 있으면 함
선정방식 및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정되지 않은 사람도 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연계 • 비슷한 사업 신청 시 같이 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람 • 선정이 한 번에 끝나지 않으면 함 • 세대통합, 지역결합, 전통과 현재 미래가 연결, 사업간 융합된 것이 선정되길 바람
지원금, 선정 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만 원으로 지원을 줄이고 많은 팀을 선정하는 방식을 제안
지원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3개 주체가 함께 사업을 계획, 진행하는 기회 (협력사업)
예산사용 방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최자가 자유롭게 계획을 짜고 최대한 원안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
네트워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이 진행되는 동안 라운드테이블이나 파티 방식으로 공유되면 좋겠음 • 서로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알 수 있는 장을 상시적으로 열기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가보다는 발표, 피티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음 • 결과보다 과정이 잘 드러나면 좋겠다. 실패로 평가되는 결과도 결과임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늘과 같은 자리를 청소년들과 진행해보면 좋겠음 • 사업 진행 과정에 지역 청년들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길 바람

13. 시범사업 종합의견

■ 지역성과 활동

- 지역 현안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 현재 사업의 연계된 사업 아이টে을 제안
- 지원사업의 주제, 선정기준 등에 있어 지역성을 중요하게 고려

■ 연결에 대한 욕구

- 다른 주체들에 대한 관심과 협력사업을 만들어보고자 하는 욕구가 큼
- 지원사업에 있어서도 상호 간 네트워킹 활동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음

■ 도전과 실험에 대한 욕구

- 지역 내의 도전과 실험을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필요성과 주체의 욕구 확인
- 평가와 선정, 운영 전반에서 결과보다 과정을 더 중시하여 운영하기를 바람

IV. 사업 제안

1. 과거 진행 사업 분석

■ 교육

- 2023년 - 2025년 3월까지 진행된 교육 프로그램 조사
- 박물관 관람객을 대상으로 하는 체험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며 이중 ‘밭으로 간 실학자’는 목화 농업을 체험하고 실을 짓는 행위까지 이어지는 연속 프로그램
- 주된 체험이 박물관 관람 어린이, 청소년 혹은 자녀를 둔 가족을 중심으로 설계
- 기관 연계 프로그램으로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공공기관 종사자, 하남시장장애인복지관이 있음

연도	제목	대상	내용
2023	실-하게 놀자-!	어린이	주말 상설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밭으로 간 실학자	가족	다산정원 교육체험장에 목화씨를 심고 가꿈
	정약용의 가족사랑, 매조도 그리기	가족	기획전 연계, 전시 관람 후 매조도 그리기 체험 프로그램 진행
	생생! 실학여행	경기도 내 학교	학교연계프로그램, 정약용 유적지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 (시청각학습, 미션활동, 체험)
	실학자와 유물 하나	어린이, 청소년	상설 체험 프로그램, 로비의 공간에서 유물을 채색하고 문제를 푸는 방식으로 운영
	다산 공립 아카데미	공무원, 유관기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대상 실학에 입각한 개혁과 청렴 정신 학습 답사 프로그램
	오늘은 내가 실학자	하남시장장애인복지관	기관협력 프로그램으로 하남시장장애인복지관 평생문화센터와 함께 운영
	밭으로 간 실학자	가족	주말 가족 프로그램, 봄 시즌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목화에서 실을 짓고 직조하는 프로그램
	더하고, 꾸미고, 누리고, 즐기다	가족	기획전 연계, 전시 관람 후 체험 프로그램 진행
	달과 별 이야기	가족	실제 별을 관측하며 실학과 천문을 체험하는 천문 관측 프로그램
	정원대보름 한마당	누구나	연 만들기, 부럼꾸러미 나눔, 윷점 등 세시풍속 체험 프로그램
	생생실학여행	초중등 학생	학교연계프로그램, 정약용 유적지를 연계한 현장체험 학습 (시청각학습, 미션활동, 체험)

IV. 사업 제안

연도	제목	대상	내용
2024	실-하게 놀자-!	누구나	주말 상설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해팔지 만들기, 주머니 만들기, 키링 만들기)
	밭으로 간 실학자	가족	다산정원 교육체험장에 목화씨를 심고 가꿈
	자산어보 속으로 AI와 함께하는 시와 그림	어린이, 보호자	실학박물관 특별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 연계 교육, AI 활용 창작 활동
	남양주 다산 정약용 교육과정 거점형 공유학교	남양주시 초 3-4	구리 남양주 교육지원청과 함께 운영, 초등생에게 실학의 가치를 안내 교육, 관람, 체험으로 구성
	밭으로 간 실학자	가족	주말 가족 프로그램, 봄 시즌 프로그램의 후속으로 목화에서 실을 찾고 직조하는 프로그램
	달과 별 이야기	가족	실제 별을 관측하며 실학과 천문을 체험하는 천문 관측 프로그램
2025	실-하게 놀자-!	어린이	주말 상설프로그램,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제공

■ 행사

- 설날, 추석, 다산축제와 연계되는 다양한 체험 놀이 프로그램을 운영
- 전시, 포럼과 연계된 체험 프로그램, 공연 등 운영
- 연극, 음악 등의 예술 장르와 결합한 프로그램 운영
- 개관기념, 뮤지엄숍 구입 연계 이벤트 운영
- 세미나, 포럼 등의 학술 연구 프로그램 운영
- 지역 연계의 경우 음악이 흐르는 한강 외에 본 연구의 프로그램 2건 운영

연도	제목	대상	내용
2023	입춘맞이 행사 봄의 시작을 함께해요	누구나	목화, 국화, 상추, 시금치 씨앗 나눔 행사
	다 같이 돌아 실학 한 바퀴	가족	박물관 어린이날 행사 실학페인팅, 매조도 만들기, 해시계 팔찌 만들기, 배지 만들기, 보물찾기 이벤트 등
	간서치 실학자 되기	누구나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 연계 발간 도서, 책갈피 나눔 행사
	실하게 즐기는 여름방학	초등학생	그림일기 공모전, 접수 후 심사를 통해 수상 - 실학박물관과 주변을 방문해서 느낀 점
	연암 박지원가 소장 필사본의 가치와 위상	누구나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과 경기문화재단 공동 학술대회

연도	제목	대상	내용
	모두가 함께하는 실학한마당	누구나	추석연휴 맞이 박물관과 인근 유적지를 답사하며 역사해설연극 공연 운영, 판소리와 민요 공연, 체험 프로그램
	남양주 세계다산학 한국-베트남국제학술 회의	누구나	한국과 베트남의 실학사상 : 정약용과 레귀돈을 중심으로 하는 학술회의
	어린이 실학콘서트	어린이	정약용 문화제 부대프로그램 실하게 놀자 프로그램 연계, 낱말퍼즐, 독서 체험 프로그램 운영
	살아있는 박물관	누구나	살아있는 박물관은 연극을 통해 2023장신구기획전 《조선비주얼》을 소개
	크리스마스 친환경 선물 이벤트	누구나	눈사람& 트리 키링, 담요, 목도리, 티코스터, 칫솔꽂이, 튜브짜개 등 폐플라스틱을 활용한 친환경적이고 실용적인 선물 나눔 이벤트
2024	갑진 설날 함께 해용	누구나	설날 맞이 이벤트 한복체험, 족석사진, 민속놀이, 떡 나눔, 용띠 인증 기념품, 갓 만들기 체험 등
	신(新) 경세유표 기회의 경기 강진순례	경기도 청년	다산 정약용 유적이 있는 강진 지역의 청년 창업자를 위한 투어 탐방 프로그램, 창업특강, 청년교류, 다도 체험 진행
	간서치 책방	누구나	실학박물관에서 큐레이션한 도서를 나누는 도서 나눔 행사
	어린이날 행사 바다야 놀자!	가족	특별기획전 《그림으로 다시 쓰는 자산어보》 연계 바다와 바다생물을 주제로 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
	작은 음악회 음악이 있는 정원	누구나	2024년 실학박물관 야외음악회
	역사해설연극 다산 선생과 노을-자!	누구나	경기도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역사해설연극 프로그램
	실학박물관 관람객 10만 명 돌파 기념 뮤지엄숍 랜덤 선물뽑기	1만원 이상 구매 관람객	뮤지엄숍 구매 이벤트
	벗고, 잠시	학생, 성인	경기상상캠퍼스 멀티벙커에서 진행 기후위기 문제의 실학적 해법을 찾는 포럼, 렉처퍼포먼스
	음악이 흐르는 한강	경기도민	'다산 정약용과 한강'을 주제로 경기동북부 지역의 공·사립뮤지엄 6개 기관과 연합행사 개최 국내 최초 서양악기박물관인 프라움악기박물관과 함께하는 음악 콘서트
	실학이 국악과 만났을 때	누구나	실학자들의 시와 산문, 전통 국악의 음악회
	전래놀이 체험	초등학생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다산문화제, 한가위에 진행하는 전래놀이 프로그램 통합 홍보

IV. 사업 제안

비고	제목	대상	내용
	이리오너라, 다산과 함께 놀자!	누구나	추석 문화행사 프로그램 공연, 체험, 놀이 프로그램 운영
	뮤지엄숍 랜덤 선물 뽑기	뮤지엄숍 구매자	찾아가는 비엔날레-느슨한 연대와 함께 실학박물관에서는 뮤지엄숍 문화상품 구매고객 대상 랜덤 증정 이벤트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	누구나	유적답사 이동 마당극 <정약용 선생님과 하루>
	실학연희	누구나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특별공연 전통연희를 서양음악으로 재해석
	실학박물관 개관 15주년 기념 뮤지엄숍 이벤트	뮤지엄숍 구매자	개관 15주년 맞이 이벤트 상품 및 도서 할인과 SNS 참여, 선물 증정
	동지, 겨울에 이르다	누구나	팔죽 나눔, 헌책을 이용한 새해 소원을 담은 트리만들기 (동지복과)
	지역활동가 네트워크 파티 밖으로 나온 실학	지역주민, 활동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 네트워킹 프로그램
2025	2025년 설맞이 문화행사 사랑 가득한 설날	누구나	다도 및 다식 만들기 체험, 신년 윷점, 한복 체험, 팬이치기, 선물증정 이벤트
	동시대 실학 세미나: 실학, 오래된 새로움 참여 안내	누구나	동시대 실학 세미나 <실학, 오래된 새로움> 대학로 예술가의 집
	실·실·실 프로젝트 상상모임	지역주민, 활동가	본 연구에서 진행한 지역실험 설계 워크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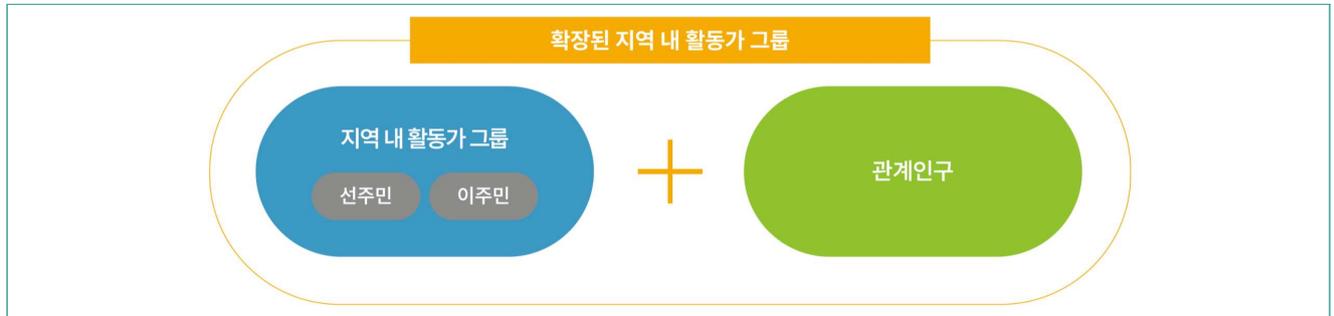
종합분석

- 박물관을 찾는 가족 단위 관람객을 타깃으로 프로그램 기획이 집중
- 체험, 증정 등의 일회성 프로그램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음
- 기관과의 연계 사업도 공동기획보다 기관의 성격에 맞게 기존 프로그램을 변경하는 수준
- 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참여한 참여자가 박물관의 기타 행사에 참여할 동기 형성 불가
- 실학박물관 공간과 연접한 유적 및 자연환경을 활용하는 특화 프로그램으로 박물관 실내 뿐 아니라 외부까지 확장되는 관람, 투어, 해설연극, 음악회 등이 활발함
- 경기도, 청년 등의 참여자 특화는 있으나 지역주민에 특화한 프로그램의 운영 필요, 이를 위한 사전 의견조사 등의 작업이 필요함

2. 향후 사업 제안

■ 사업의 방향

- 열고 끝다 : 지역 내 활동가 결집 및 인접 지역 인적 자원의 유인



- 대상 범위의 확장

: 지역 내에서 왕성하게 활동을 진행하는 건 이주민 그룹이지만 선주민-이주민 등으로 구분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부족한 문화예술교육 강사 등 인력은 인접 서울지역 등에서 유입될 수 있도록 대상 범위를 관계 인구 등으로 열어두고 확장해 가야 함

- 관계 인구의 확대

: 이주 가능성이 높은 현재 이주민, 해당 지역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외부인을 통합하여 특정한 지역에 계속 관심을 두고 관여하는 외지인을 지칭하는 정책용어 ‘관계 인구’로 재정립하여 이들의 관심과 애정을 유연하게 끌어내는 정책 방향 정립

- 사업 사례 : 경상북도 청도군 로컬 라이프가이더 양성과정 사례

: 경상북도 청도군은 대도시와 인접한 입지로 귀촌 및 귀농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 이를 기반으로 먼저 귀촌, 귀농 생활을 시작한 선배 그룹을 로컬 라이프가이더로 발굴하고 육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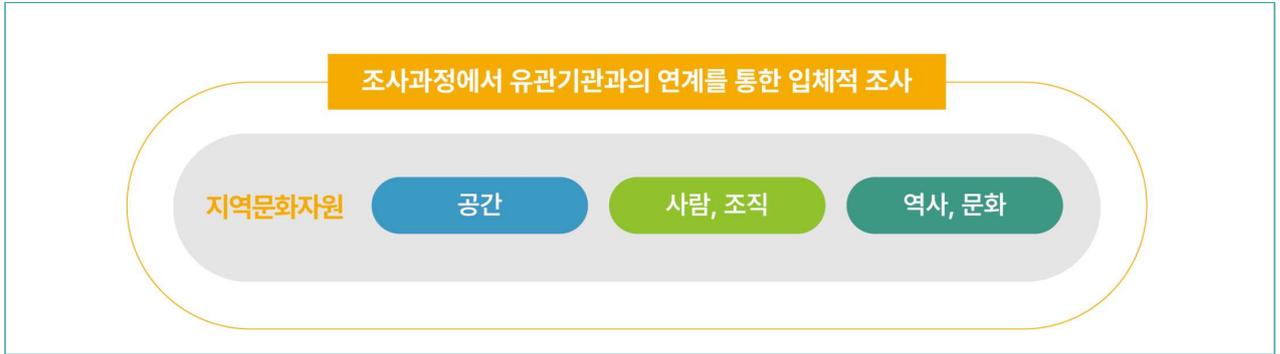
: 로컬 라이프가이더가 호스트가 되어 인근 도시의 생활 인구, 관계 인구를 초청하여 예비 귀촌, 귀농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 운영

: 예비 귀농, 귀촌 인구에게 귀농, 귀촌의 삶을 체험할 기회를 제공



IV. 사업 제안

• 보고 듣다 : 지역 조사 및 연구



- 지역의 문화자원 조사를 통해 실학과 연계할 수 있는 지역 문화자원 파악

: 조사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양평문화재단 등의 유관기관과 연계

- 지역활동가, 예술가, 문화예술교육자 등의 전문가 풀 확인 및 인터뷰

: 인터뷰 과정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깊이 있게 파악, 협업 가능성 확인

- 지역주민, 소상공인 등 지역의 일반 주민의 욕구 확인

: 양적, 질적 조사를 병행하며 지역의 이슈 및 욕구를 확인

- 사업 사례 : 춘천 도시가 살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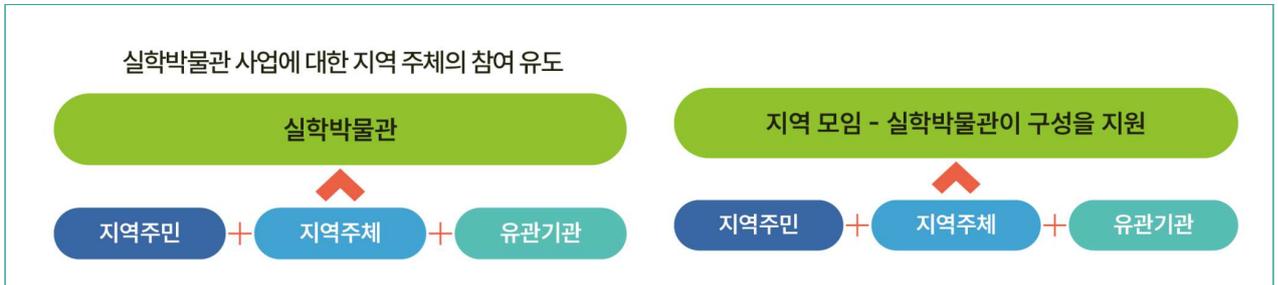
: 문화도시로 선정된 춘천은 기초단위를 넘어서 인근의 강원 권역의 문화공간, 주체를 발굴하고 네트워킹하는 사업을 추진

: 도시가 살롱 사업은 문화활동주체, 문화공간 운영자가 신청할 수 있는 소규모 지원사업으로 실험적인 사업을 지원

: 사업의 경과 및 지역의 문화주체, 지역의 문화공간을 아카이빙하여 웹페이지를 통해서 지역의 문화자원을 선보임



• 모이고 말하다 : 지역 거버넌스 구조 구축



- 실학박물관의 기획 사업에 대한 간담회를 통한 기획 참여를 유도
- 개별 사업이 아닌 집중해야 하는 담론에 대해 지역주체들이 연대해 참여할 수 있는 논의의 장을 구성하여 장기적이고 집중적인 논의 진행
- 지역주체의 활동 범위에 맞는 모임 형성을 지원하여 개별 단위와의 소통이 아닌 모임 단위의 소통을 통해 지역 주체의 네트워크를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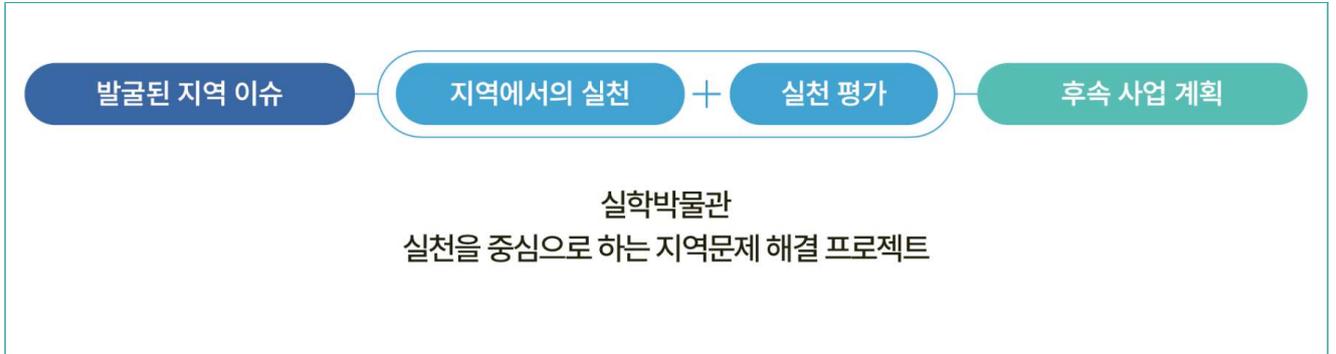
- 사업 사례 : 인천 미추홀구 온마디활동가 사례

: 인천시교육청, 미추홀구는 교육혁신지구 사업인 온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의 주민, 전문가로 구성된 온마디활동가를 모집 및 양성과정을 운영

: 온마디활동가는 양성과정을 거쳐 지역의 마을교육공동체의 활동을 정의하고 그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오리엔테이션 교육, 모니터링 지표설정, 모니터링 운영, 마을탐방 교육 프로그램 개발 등 단순 참여를 넘어서 교육혁신지구 사업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



• 행하고 평하다 : 실천적 프로젝트 운영 및 평가



- 지역에서 실학 정신에 입각해 지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천 프로젝트를 운영
- 프로젝트의 선정보다 평가에 주안점을 두어 실험적 프로젝트를 장려, 그 가치를 연구
- 프로젝트의 추진 과정을 평가하여 향후 후속 활동 등을 설계
- 사업 사례 : 예술경영지원센터의 예술경영 CoP(Community of Practice) 지원사업 사례
 - : ‘문화예술 기획경영 전문인력 양성사업’의 일환으로 단순한 정보의 수집이 아닌 지식을 활용하는 실천에 방점을 둔 CoP(실천공동체) 지원사업을 운영
 - :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다양한 전문가, 활동가들이 모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식을 공유하고 실천적으로 실험하며 문제를 해소
 - : 팀별 300만 원 미만의 소액 지원으로 매년 10여 개의 프로젝트를 지원 주제나 방식 역시 문화공간, 개별 사업, 지역 커뮤니티 등에 대한 다양한 실천적인 연구가 진행

START	CoP가 무엇인가? CoP 사례가 어떤가? 2007-2009 예술경영 CoP 주제	008 014 015
MEET	2010 예술경영 CoP 참가자 2010 예술경영 CoP 신청 그룹 및 주제 2010 예술경영 CoP 주제 선정 - 고문위원회	018 020 021
TALK	서지, 국내에서 성장해온 소셜 네트워크가 만들어낸 새로운 형태의 기록 예술경영의 진화/변동적 양상을 살펴본다 실용적, 상주적, 변형된 동기를 살펴본다 오일노브, 지역기반한 문화예술 사회적 기업 HCP, 공유공간 설립과 문화예술은 무엇인가 프로젝트, 커뮤니티, 이 공간은 무엇인가 특목대학, 포럼, 커뮤니티, 커뮤니티 평범한 사람 지역별 교육, 국가를 통해 미래를 만들어 간다	024 028 032 036 040 044 048 052

CoP명	CoP 주제	내용	구상일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사업개발을 위한 코퍼티브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개발을 위한 문화예술사업개발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의 성과사례 및 운영방법을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문화예술사업개발을 위한 방법 모색	2010년 1월
보초의 거점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개발을 위한 지역 거점	지역문화의 특성을 반영한 문화예술사업개발을 위한 지역 거점	2010년 1월
상주공간	상주공간 설립을 위한 지역 거점	상주공간 설립을 위한 지역 거점	2010년 1월
특목대학	특목대학 설립을 위한 지역 거점	특목대학 설립을 위한 지역 거점	2010년 1월
프로젝트 그룹 - HCP	프로젝트 그룹 - HCP	프로젝트 그룹 - HCP	2010년 1월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평범한 사람	2010년 1월
지역별 교육	지역별 교육	지역별 교육	2010년 1월

▮ 세부 실행 사업 제안

- **열고 켜다 : 지역 내 활동가 결집 및 인접 지역 인적 자원의 유인**
 - **마을지도 제작. 마을 탐방 프로그램**
 - : 지역의 자원, 지역의 이슈를 담은 마을지도를 제작, 외부에서 마을의 이슈 및 마을의 가치를 알아볼 수 있도록 지원
 - : 마을의 자원을 연계한 탐방코스 개발로 지역에 관심을 두는 외부인들의 유입 활성화, 마을을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원
 - **관계 인구 확장 프로그램 : 어찌다 마을**
 - : 마을의 공간, 자원을 활용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해 볼 의사가 있는 참여자들을 모집하여 마을 사람, 퍼실리테이터가 함께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마을에서의 생활을 체험할 수 있도록 지원
- **보고 듣다 : 지역 조사 및 연구**
 - **지역문화자원 조사 (정기)**
 - : 2년 주기로 정기적으로 지역자원 조사를 통해 지역의 문화자원의 현황을 조사
 - **지역문화자원 지원사업**
 - : 일반 조사로 확인하기 어려운 지역의 문화자원을 공간, 인력 지원의 방식의 소액 지원 사업을 설계하여 지역 차원의 주체, 공간들이 스스로 신청할 수 있도록 유도
 - **지역 인물 인터뷰 및 데이터베이스화**
 - : 서포터즈, 온라인 소식지 등의 사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지속적인 인터뷰를 진행, 정리된 자료는 DB에 저장하여 통합적으로 관리
 - **지역 조사 자료 활용 및 확산**
 - : 지역의 자원 조사 현황 및 연구자료를 소식지, 홍보영상 등의 홍보물로 제작
 - : 이달의 사람책, 지역 실학인 선정 콘테스트 등으로 연계 지역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알림
- **모이고 말하다 : 지역 거버넌스 구조 구축**
 - **실학박물관 사업계획 발표 및 간담회**
 - : 실학박물관의 연간, 혹은 분기별 사업에 대해 사업 방향을 지역사회에 공유하고 이 과

IV. 사업 제안

정에서 참여 및 협업 가능한 지역주체의 의견을 수렴, 지역 내에서 인력 구성 및 지역 내 기관과의 협업을 강화

- 네트워킹 지원

: 현재 양평 지역은 교육 관련 유관기관이 모인 교육네트워크가 운영 중. 이를 중심으로 지역에서 필요한 문화예술교육 강의를 위한 기본적인 교육강좌와 외부 강사의 영입 등을 추진. 이처럼 지역의 문화주체의 분야별 네트워킹 지원사업을 운영하며 지역의 예술인, 농업, 주민 등 개별화돼있는 주체들이 모여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면 지역 내 다양한 네트워크 조직체를 구축할 수 있으리라 예상

- 협업 프로그램 시행

: 지역의 네트워크 조직체와 함께 운영하는 사업을 개발하여 지역 네트워크 조직체가 실제로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예로 지역 문화예술교육자네트워크 발족 시 지역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역 특화 문화예술교육 등의 사업을 신설하여 네트워크 조직에서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 행하고 평하다 : 실천적 프로젝트 운영 및 평가

- 실천 지원사업 운영

: 지역의 다양성을 담보하는 실천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에서 연구, 모임 등의 작은 실천을 지원하거나 사업 초기과정을 지원하여 향후 협업 가능한 주체를 발굴, 육성하고 본 사업으로도 편입할 수 있도록 진행

■ 기존 진행 교육 및 사업의 확장

• <밭으로 간 실학자> 사업의 보완 및 확대 방안

- 프로그램 진행 과정

: 목화 파종 구역을 실학박물관 관내 외에 지역 내 개별적인 개인 구역으로 확대하고 목화씨의 씨앗 나눔 행사, 파종 및 생장 과정 관찰일기 작성, 목화 수확 후 제사(製絲), 직조(織造) 과정을 실학박물관에서 이벤트로 구성, 다양한 포상과 음식 만들기 및 상호 접대의 과정 등을 결합하여 축제화 함

- 세부 진행의 교육적 목표 결합

: 목화씨의 파종과 생장 과정을 식물 기르기 등 정원교육과 연계하여 관찰일기 등을 작성토록 하고 이 과정을 공유하며 식물의 공통되면서도 각기 다른 생장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함

- **제사와 직조 및 평가 과정의 축제화**

: 목화솜 수확 후 실을 짓고 천을 짜는 과정을 이벤트화하여 승부를 정하고, 서로 음식을 대접하며 콘서트 등을 결합해 함께 즐기는 축제의 과정으로 구성

- **지역 확대**

: 목화 씨앗을 나누고 파종, 생장 과정 관찰, 제사 및 직조 과정 등 일련의 사업 과정을 여타 지역 학교 등에도 공모하여 참여를 유도, 본 지역 및 실학박물관의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 가치를 제고함

■ **실학박물관 내부의 합의**

- 상기 제안 사업의 수행을 위해서는 실학박물관의 사업 운영 프로세스의 변화가 필요
 - 사업의 기획, 운영 과정에서 지역 주체의 의견을 수렴 참여를 촉진할 방안 강구
- 실학박물관의 전담인력 구성 필요
 - 지역사회와의 소통은 장기적이면서 섬세한 작업임으로 이를 전담할 전담 인력이 필요, 전담 인력의 지속적인 참여와 적정한 업무 시간 배정이 필요
- 실학박물관의 역할 확대에 맞는 대외 협력 필요
 - 지역사회 및 지역주체의 소통을 위해서 박물관이 주축이 되는 네트워크 모임의 구축이 필요
 - 박물관의 예산만으로 한계가 있어 경기도형 도시재생, 문화도시, 생활권 단위 로컬브랜드 사업 등 중앙정부 사업 설계 시 박물관의 역할을 명기할 경우 중앙정부의 예산을 통한 연계 사업 진행이 가능. 단 해당 사업들의 기획 및 운영 과정에 박물관이 적극적인 결합을 할 필요가 있음

발행일 2025년 3월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다산로 747번길 16(12283)
031-579-6000 silhak.ggcf.kr
총괄 김필국(실학박물관장)
책임 서은경(실학박물관 기획운영팀장)
기획편집 김진아(실학박물관 기획운영팀)
공동기획 강보영, 김채진, 라정민, 신은경
연구수행 모씨네 사회적협동조합
연구책임 윤진현
공동연구 전철원, 라정민, 장미란, 신나래
연구보조 강보영, 김채진, 신은경

© 경기문화재단 실학박물관

이 책의 저작권은 실학박물관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담긴 내용 및 자료는 실학박물관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ISBN 979-11-91712-06-3